

SUPREME MASTER CHING HAI

#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90호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신간 발표회

현재 포모사 전국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서적으로 절찬 판매 중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방송 1주년을 축하합니다

<http://www.SupremeMasterTV.com/kr>



# 동물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칭하이 무상사/ 2007. 8. 24. 포모사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신간 발표회 독자와의 화상회의 (원문 중국어)



**만**은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새나 개 등을 키우기 좋아하지만 모두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비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시간에 쫓기거나 경험이 없거나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들은 집이 좁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이 동물을 기르기에 적합한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심을 보이려고 동물들을 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동물을 키울 수 없다 해도 지속적으로 동물 보호 단체를 후원하거나 동물 사랑의 메시지를 퍼뜨리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도 큰 도움이 되지요.

만일 동물을 입양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를테면 새의 경우엔 우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새가 우리와 더 좋은 인연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책을 보고 공부도 하고 자기가 어떤 새를 좋아하는지, 그 새를 입양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냥 집에 데려와 먹이만 주면 되는 게 아니지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친구나 친지를 대하듯 그들을 돌봐주고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하며, 그렇게 해야 동물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깊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매우 충실하고 감성적이며 인간 보호자를 자기 가족처럼 대합니다.

또한 매일 새장도 깨끗이 문질러 닦아 청소해 주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놀게 해주어야 합니다. 매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소통하고 얘기하는 일은 매일 해야 합니다. 내면으로 소통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나 중국어로 얘기해도 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여러분이 새를 기른다고 치면 나처럼 매일 새와 소통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대하면 새가 그 사랑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클수록 새와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사람과 대화할 때처럼 분명하게 마음으로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모든 동물이 그

됩니다. 그들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언어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물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십시오. 하지만 천천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꼭 말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는 내면에 텔레파시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들과 어울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텔레파시 능력이 점차 개발됩니다. 진심으로 동물을 이해하고자 할 때 잠자고 있던 이런 영적 자질이 자연스레 나타날 겁니다. 난 새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났지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언어를 초월하여 서로를 더욱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조용한 밤에 그들과 함께 앉아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동물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면 그들이 말이 아닌 텔레파시로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깜짝 놀랄 것입니다. 혹시 정말 불가능하다 해도, 가령 너무 바빠 차분해질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텔레파시 능력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돌보듯 동물을 돌보면 서로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면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새와 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지요. 나 또한 매일 새들과 많은 대화를 주고 받진 않습니다. 우린 그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따름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요.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견본책자

### 아제르바이잔어

개인 웹사이트나 포럼,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 다국어 웹사이트(<http://sb.Godsdirectcontact.net>)를 링크하셔도 됩니다. 서로 힘을 모으면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신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구에 있어 최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국어가 우리 다국어 목록에 없어서 견본책자를 자국어로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시려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divine@Godsdirectcontact.org](mailto:divine@Godsdirectcontact.org)) ☀





출판일자: 황금시대 5년(2008년) 5월 21일  
 설립년도: 1990년 4월 1일  
 발행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Hsieh Hsin-lin  
 인쇄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02) 577-2158 /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을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는 뜻인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들이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영성 교양과 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합니다.

- 2 스승님 말씀  
동물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
- 03/ 83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견본책자/ DVD/ CD/ 책
- 05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방송 1주년을 축하합니다!/ 타임스 광장에서 발산되는 지고의 축복
- 10 매체 보도  
독일 위성 잡지 『인포넷』
- 11 다채로운 이벤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태국/ 대한민국/ 포모사
- 23 주요 연락처
- 24 특별 보도  
파리 선삼(禪三)-방은 작아도 사랑은 무한하다
- 27 시  
당신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 28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자오칭 씨/ '캄보디아의 딸' 양웨이링
- 31 이야기 세상  
집으로 보내온 한 통의 짙막한 편지
- 32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MS 스와미나단 교수/ 티베트 동물 보호 자원 봉사단/ 이달의 수상자-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 37/ 78 스승님의 농담  
무서운 개를 피하세요!/ 여보, 차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 38 빛나는 세계 영웅상  
고귀하고 사랑이 넘치는 물소
- 40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간 품성과 숭고한 품성을 계발하자
- 45 특집 기사  
심금을 울리고 대중적 인정을 받은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신간 발표회/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포모사 전국을 빛낸다
- 52 지혜어록  
신간 독자들에게 보내는 스승님의 축복
- 53 양서 입문  
칭하이 무상사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에 관한 사색
- 54 관음 웹사이트
- 55 골라 뽑은 수행 문답  
동물 세계에 대한 이야기/ 동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법
- 56 채식 시대  
채식 식당차-이동식 점포를 이용한 좋은 소식 나누기
- 58 어둠 속의 등대  
재미있는 영성 교양 수업: 약물중독치료센터 원생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다/ 스승님께서 재소자 강 씨에게 사랑과 격려를 보내시다
- 61 사랑의 실천  
인도/ 어울락/ 페루/ 부르키나파소/ 미국/ 중국/ 칠레
- 65/ 79 감사 편지  
어울락/ 일본
- 80 전세계 연락처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 팡쑹 1주년을 축하합니다!

## 의식을 고양시키는 평화의 프로그램 방송 1주년 기념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첫째 주,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긍정적인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내보내는 데 노력하는 채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개국 1주년을 맞았다. 심신과 영혼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자 노력하고 완전히 새로운 TV 방송 방식을 제시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12가지가 넘는 언어 자막과 40여 개 언어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위성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을 통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전세계 수억의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전 지구의 의식이 고양되는 것을 목격했다. 중동 지방에서 동북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우호적인 관계들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 스승님과 화상회의

9월 7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스튜디오 스태프들은 칭하이 무상사와 1주년 기념 실시간 화상회의를 하는 영광을 얻었다. 많은 이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께 감사를 표했다. 스승님은 자상하게 평화를 향한 당신의 염원을 함께 나누셨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세상의 안정을 위해, 세상의 좋은 일과 아름다움을 위해, 또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오직 평화 속에서만 확립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지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평화 속에서만 우리는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1시간 이상 지속되었던 화상회의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비벌리힐스 시장의 축하 인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시장인 안토니오 R. 비야라이고사(Antonio R. Villaraigosa) 씨도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측에 축하 인사를 보내왔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의식을 고양시키는 긍정적이고 감동적인 TV 프로그램을 방영한 지 1년을 맞은 것에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프로그램, 형제애가 담긴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사랑과 자비의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프림 마스터 TV’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류애,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

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공통된 약속을 일깨워 줍니다.”

비벌리힐스 지미 델샤드(Jimmy Delshad) 시장도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1주년 생일에 정중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1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1주년을 맞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오래오래 장수하여 우리 모두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미 델샤드 시장과 비벌리힐스 시의회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하다.

## 시청자들의 메시지

**전** 세계 각지의 많은 시청자들도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1주년을 축하하는 서신을 보내왔다. 다음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부 편지 내용이다.

### 아르헨티나의 한 기자가 보내온 편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는 스승님이 성스런 인도자, 등대, 빛이 되어 이끄시는, 대의(大義)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란 걸 알게 됩니다. 마치 보물과도 같지요. 전 스승님의 강연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으로 충만해져거든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탄생은 하나의 축복으로서…… 미국 방송국에서 다양한 언어로 매일 24시간 생방송으로 보내지는 프로그램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 같은 채널이 열 개 정도 더 있다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열 개 더 있고 각 대륙마다 하나씩 있어서 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유럽·남미가 서로 연결되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처럼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만 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한하고 위대한 진리로 인도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 독일의 시청자가 보내온 편지 (원문 독일어)

이 채널을 켜 순간, 거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의 모습, 지적인 해설 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정말 멋지게 여겨집니다. 방송인들의 역량이 각기 달라 정말 흥미롭더군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채널에서 한데 어우러져 공통된 목적을 지니고 협력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생일을 축하합니다!

## 캐나다에서 앨버트(Albert) 님이 보내온 편지

'수프림 마스터 TV'의 기쁜 1주년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큰 성공을 거두셨지요. 인터넷과 전세계 가정 에 의식을 고양시키는 영적인 프로그램을 가져다주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은 한 마디 말로 요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지가 지닌 의미와 도덕적 가치는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전 그중에서도 특히 동물과 생물을 다룬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는 아직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부족한데,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더욱 번창하고 기쁨에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공과 행복이 있기를. 감사합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진보보수당(Ontario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 당수 존 토리(John Tory) 님이 보내온 편지

우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본인도 방송사를 경영해 봤기 때문에 텔레비전 방송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프림 마스터 TV'가 잘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캐나다 내에서 이런 방송 방식을 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도하여 대중들에게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1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길이가길 방송 기념일을 맞이할 것이라 믿습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축하를 보냅니다! 의식을 고양시키는 이 프로그램의 넘치는 은총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밝은 미래로 이끌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칭하이 무상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평화·고귀함의 빛나는 모범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 격려해 주는 크나큰 원천입니다.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1주년 특집 프로그램을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anniversary>





## 타임스 광장에서 발산되는 지고의 축복

미국 홍보 팀 (원문 영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통신사인 ‘PR 뉴스와이어(Pr Newswire)’가 최초로 우리에게 관한 보도 자료를 국제 언론에 제공했다. 또 PR 뉴스와이어는 보도 자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로이터 통신(Reuters)과 함께 뉴욕 타임스 광장에 위치한 로이터 통신 광고 게시판에 포토 뉴스를 게재해 주었다.

올해 4월부터 우리는 타임스 광장 광고판에 스승님의 사진이 인쇄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를 실을 방도를 모색했지만 엄두도 못할 정도로 가격이 비쌌다. 그러므로 이 포토 뉴스가 광고판에 게시된 건 정말 천국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모두 그 과정 속에서 신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는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보낸 이메일 때문에 영국 사형이 기적처럼 ‘등장’하기까지 했다! 그 사형이 타임스 광장에 올릴 그래픽 아트를 만들 줄 알았던 덕분에 우리는 때 맞춰 PR 뉴스와이어에 광고 원고를 보낼 수 있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방송 1주년 기념 1주간 행사 기간에 맞춰 광고가 나간 것도 시기적으로 완벽한 또 하나의 축복이었다. 스승님의 빛나는 사진이 들어간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타임스 광장 포토 뉴스는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3일부터 뉴욕 중심부에서 세계 만방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광고판은 하늘 높이 솟아 있는 23층짜리 로이터 통신사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매일 150만이 넘는 사람들이 눈길을 준다. 간판은 세 개의 디지털 광고판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운데 광고판은 가로 46피트, 세로 23피트로 기사 표제가 들어가고, 밑의 광고판은 가로 32.5피트, 세로 35피트로 사진이 들어간다.

우리 포토 뉴스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1주년을 맞이하여 평화·문예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사진에는 스승님의 사진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로고, 웹사이트 주소가 들어가 있다.

9월 3일이 포함된 주간 동안 스승님의 사진이 든 우리 포토 뉴스는 일주일 내내 매일 최소한 세 번에서 열 번까지 전광판에 게재됐으며, 그 밖에도 많은 ‘무료’ 광고 서비스와 하루 두 배의 보장 게재 시간까지 받았다! 또한 PR 뉴스와이어 측에서 광고물을 비디오로 녹화해 준 덕분에 1주년 기념 행사 기간에 맞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새 소식(Fly-In News)’ 시간에 기사가 보도될 수 있었다.

이 밖에 PR 뉴스와이어는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26개 언어권의 9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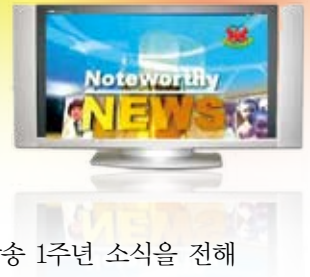


사업부장 단 헤네스 씨가 감사 편지와 선물 꾸러미를 받다.



나디아 피오렐로 씨가 뉴스와이어사 멀티부 부국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카펠로 씨를 대신해 감사 편지와 선물 꾸러미를 받다.





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고객과 일반 매체 편집장들에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방송 1주년 소식을 전해 주기도 했다. 국제 매체 12,165곳, 미국 매체 4,700곳이 이 소식을 받았다.

9월 19일, 우리 팀원들은 뉴욕의 PR 뉴스와이어를 방문해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하여 감사 편지와 선물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참에 직원들과 간단한 인터뷰도 가졌다. 우리는 사진 사업부장 단 헤네스 씨(Mr. Dan Hennes)와 뉴스와이어 영상국 멀티뷰(MultiVu) 부국장 데이비드 카펠로 씨(Mr. David Cappello)의 대리인 나디아 피오렐로 씨(Ms. Nadia Fiorello)를 만났다.

선물 꾸러미에는 스승님의 책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One World..... of Peace through Music)』, 『무자시(無子詩)』,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Direct Contact with God-The Way to Reach Peace)』, 견본책자가 들어 있었다. 완전 채식 월병과 유기농 완전 채식 초콜릿, ‘대안적인 삶’·‘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쇼팽백도 특별히 준비해 가서 부서 직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선물했다. 채식인인 사진 전문가 질 울리크니(Jill Ulicney) 씨가 이 선물에 특히 기뻐했다.

우리는 PR 뉴스와이어 측에 스승님의 가르침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관련 참고 자료들도 제공했다. 단 헤네스 씨는 긍정적인 매체는 매우 중요하며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나디아 피오렐로 씨는 가능한 한 최대한 돕고 싶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런 방식을 통해 스승님의 사진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지구의 전체 의식이 많이 고양되었으며, 신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이 이 지구를 고양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프로그램은 전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전세계 무수한 매체들이 영어·스페인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네덜란드어·중국어·태국어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방송 1주년 보도 자료를 전했다. 그중 엄선된 일부 매체를 아래에 소개한다.

<http://sev.prnewswire.com/entertainment/20070901/NYSA00201092007-1.html>

세계 최대의 기업 뉴스 배포 통신사 ‘PR 뉴스와이어(PR Newswire)’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

[http://www.thestatesmanonline.com/pages/news\\_detail.php?newsid=4689&section=1](http://www.thestatesmanonline.com/pages/news_detail.php?newsid=4689&section=1)

가나 신문 『정치인(The Statesman)』

<http://www.newswire.ca/en/releases/archive/September2007/03/c4675.html>

‘캐나다 뉴스와이어(Canada Newswire)’ (프랑스어)

<http://aap.newscentre.com.au/asiancompanynews/070903/library/asianet/16133958.html>

‘아시아 펄스(Asia Pulse)’

<http://www.thailand4.com/news/2007-09-03/0305-supreme-master-television-celebrates/>

태국 언론 보도 자료(Thailand News and Press Releases)

<http://www.xprn.com/xprn/storyCenter.do?method=loadStoryDetail2&storyNo=073629&langId=2&areald=86>

중국에서 유일하게 기업 부문의 세계 소식을 공급하는 통신사 ‘신화 PR 뉴스와이어(Xinhua PR Newswire)’ (중국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이들 매체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인포셋(InfoSat)』은 디지털 TV·라디오·인터넷·휴대전화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싣는 유럽의 주요 잡지이다. 대개는 매월 발행 부수가 3만 부가량 되는데, 이번 달은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소비 전자제품 전시회 중 하나인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기사 때문에 8만 부를 찍었다. IFA에는 32개국에서 천여 곳의 출품자들이 참가하고 수십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인포셋』도 이 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했고, 신의 은총 덕분에 많은 방문객들이 『인포셋』 잡지에 실린 기사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광고를 보고 스승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인포셋』이 '수프림 마스터 TV'에 대해 보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첫 기사는 2006년 가을호에 실린 바 있다.

## 독일 위성 잡지 『인포셋』

9월호 (원문 독일어)

### 수프림 마스터 TV: 위성을 통해 동양적인 삶을 추구하다

영성, 동방의 지혜로운 가르침, 채식주의, 비폭력 추구, 이것이 이 방송에서 다루는 주제이다. 영성과 의미, 명상과 비폭력적인 삶의 추구에 전적으로 헌신해 온 방송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위성 방송을 시작한 지 일 년이 지났다. 세계 각지의 반응으로 볼 때 이 채널이 세계적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영어로 방송되며 독일어·프랑스어·아랍어·페르시아어·러시아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중국어·한국어·어울락어(베트남어) 자막이 제공된다.

최근 이 국제적인 TV 채널은 동경 19.2도의 아스트라 1(Astra 1) 위성을 통해서도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웹사이트([www.suprememastertv.com](http://www.suprememastertv.com))에는 매일 정규 방송 프로그램 외에 상당한 분량의 동영상 상이 올려져 있어 시청자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1억 7백만 가구가 아스트라 위성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다. 이 밖에 이전 핫버드 6(Hotbird 6) 위성을 통해서도 계속 시청 가능하므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유럽의 주요 위성 TV 두 곳을 통해 매일 24시간 방영되고 있는 셈이다. '지혜의 말씀'을 비롯해 채식 요리 프로그램, 전세계 뉴스, 국제 문예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매혹적인 프로그램도 가득해서 구도자들과 채식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분명 관심을 가질 만한 채널이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인포셋』 잡지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세계 의식의 고양에 공헌한 여러분께 천국의 축복이 충만하길 기원한다. ☀





**동** 물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아울러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의 마음에서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을 디자인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계에 제시하셨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계적인 질병 위기를 극복하고 동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채식 생활을 선택하고 살생을 멈추라고 일깨워 준다. 모든 동수들에게 세계 곳곳의 형제매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라고 하신 스승님의 당부에 따라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이탈리아

## 이탈리아 페스카라 최초의 영상 강연회

이탈리아 뉴스그룹 (원문 영어)

**[페스카라]**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이탈리아 최초의 영상 강연회가 페스카라(Pescara)에서 열렸다. 페스카라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탈리아 아브루초(Abruzzo)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슬로베니아 동수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이를 동안 2만 장의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 한 면에는 영상 강연회 소식이, 다른 한 면에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최신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실렸다.



우리는 전단을 해변·도심지·시장·쇼핑몰 주변에서 나눠 주고 주차된 차량에 꽂아 두는 한편 전기 단자와 카페 창문에도 붙였다. 그리고 시내와 해변 산책로 옆에도 약간의 포스터를 붙였다. 한 젊은이는 스승님을 알아보고 얼굴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여자 분을 알아요. 위성 채널에서 봤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합니다.” 열 살 난 한 소년은 스승님의 사진을 보고선 엄마한테 강연회에 데려가 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8월 13일 오후, 60명가량이 영상 강연회에 참석했다. 사람들은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즐겁게 시청했으며, 약 40명이 남아서 방법법을 배웠다.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연락하면 이 명상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냐고 물었다. 약간의 다과를 함께 나눈 뒤 우리는 남은 사람들과 계속 얘기를 나눴다.



많은 이들이 떠날 때 감사를 표했다. 환희로 빛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이 이번 강연회에 참석해 스승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영상 강연회를 계획했던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스승님의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강연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승님의 존재와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페스카라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 오스트리아

# 돼지 레오폴드와 함께한 특별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1주년 기념 행사

오스트리아 빈 센터/ 입문자 이디스 뮐러 (원문 독일어)

**[비엔나]**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25일, 비엔나 동수들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1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오스트리아 헨들베르그(Hendlberg) 라벤(Laaben)에 있는 동물 보호소 ‘동물의 정신(Animal Spirit)’에서 열렸다. 그곳은 버림을 받았거나 구조되거나 고통 받던 동물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사랑 어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이 행사를 맞아 우리는 ‘레오폴드(Leopold)’라는 행운의 돼지(말 그대로임)를 입양했다. 그는 생후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약 두 달 전에 용감한 의사들에게 의해 축산 농장에서 벗어나 현재 보호소에서 살고 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친구인 당나귀와 함께 들판에서 꿀꿀거리며 즐겁게 뛰어노는 걸 좋아한다. 레오폴드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젠 그가 우리에게 한 말이다! 🌟



## 뉴질랜드

# 스승님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뉴질랜드에 널리 퍼지다

뉴질랜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클랜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보다 광범위한 뉴질랜드 독자층에 좀더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신문인 『뉴질랜드 헤럴드(New Zealand Herald)』와 가장 많이 읽히는 월간 경제 잡지 중 하나인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Business to Business)』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를 정기적으로 게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5월호와 6월호에 두 차례 유료 광고가 나간 뒤, 우리 광고 담당자인 자넷 킬링(Janet Keeling) 여사는 7월호에 무료로 광고를 실었다고 말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감명을



받은 나머지 즐겁고도 감동적인 이 TV 채널을 보다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알리길 열렬히 원했기 때문이다.

킬링 여사의 고귀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우리는 전화로 감사 인사를 하고 스승님의 감사 편지와 초콜릿, 스승님의 책, DVD, CD를 선물로 전했다.

킬링 여사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동료들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함께 나누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 때문에 그녀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그녀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그녀는 모두 불러 직접 보게 했다!

킬링 여사는 스승님의 출판물과 초콜릿을 받고 놀라움에 서린 기쁨을 표했다. 당시 그녀는 임신 8개월째였는데, 아기와 함께 초콜릿을 먹게 됐다며 즐거이 말했다.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 어머니와 뱃속의 아기가 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에 정말 기뻐다.

우리는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알릴 기회를 주신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렸다. 신의 이 놀라운 선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로우를 얻게 될 테니 감사한 마음뿐이다. ☀



## 캐나다

### 매체에 전하는 감사 편지

몬트리올 뉴스그룹 (원문 영어)

**[몬트리올]**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센터 동수들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 전단 1만 5천 장 이상을 배포하는 한편 『라 프레스(La Presse)』, 몬트리올 저널(Le Journal de Montreal), 『몬트리올 가제트(The Montreal Gazette)』, 『24시간(24 Heures)』, 『메트로 인터내셔널(Metro International)』, 『태양(Le Soleil)』 등 퀘벡에서 발행되는 모든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실어 프랑스어

와 영어를 사용하는 수백만의 독자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이 밖에 다른 민족 독

자들을 위해서 지역의 어울락어·중국어·러시아어 신문과 잡지에도 광고를 올렸다. 그중 어울락 신문인 『안녕(Anh Nang)』과 『토이모이(Thoi Moi)』가 특히 많이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이 긍정적인 TV 채널의 좋은 소식을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자발적으로 더 많은 광고를 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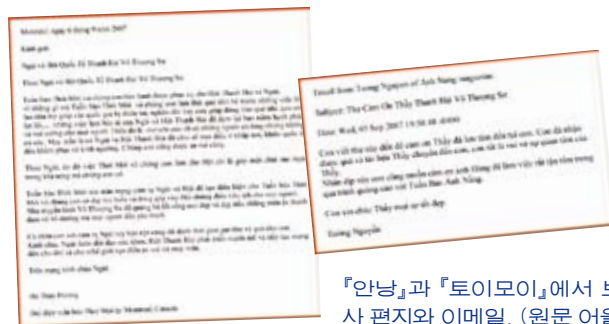
이에 우리는 최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



회를 대표해 이 두 잡지사를 방문해 감사 편지와 선물을 전했다. 잡지사 대표들도 이에 화답해 칭하이 스승님께 자신들의 사랑과 감사를 전했다. 푸옹 응우옌 씨(Mr. Tuong Nguyen)는 『안녕』 잡지사를 대표해 스승님의 배려에 감사를 표하는 이메일을 보내왔고, 『토이모이』 잡지사의 하 투이 후옹 여사(Mrs. Ha Thuy Huong)는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대함을 알고 다음과 같이 편지에 썼다. “『토이모이』 주간지와 저희가 하는 일은 스승님이 다른 여러 나라를 위해 해 오고 있는 그 모든 위대한 일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국제협회와 스승님의 인도주의적 노고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었고…… 『토이모이』 잡지사와 저희 모두에게 다른 이들을 위해 행하는 국제협회의 활동들에 대해 알고 또 협조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과 국제협회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토이모이』사 대표 하 투이 후옹 여사.



『안녕』과 『토이모이』에서 보내 온 감사 편지와 이메일. (원문 어눌락어)

## 미국

# 시내 상가에서 스승님의 지혜를 나누다

오타와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타와]**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1일 토요일은 긴 노동절 휴일이 시작되는 첫 날이었다. 몇몇 오타와 센터 동수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책과 DVD를 함께 나누고자 캐나다 수도 중심지인 바이워드 시장(Byward Market)에 부스를 마련했다. 오타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노천·실내 시장인 바이워드 시장은 ‘각성 프로그램(Awareness Program)’의 일환으로 비영리 단체에 탁자와 차양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는 스승님의 사진과 우리 협회 현수막, 깃발로 부스를 꾸미고 스승님의 책과 DVD를 진열했으며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TV로 상영했다. 그날 많은 외국인 방문객과 외지인이 시장을 찾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새 광고지를 나눠 주었으며,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무료 견본책자와 현지 연락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랑의 바다 씨앗을 심을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 메릴랜드 사람들이 스승님의 축복을 널리 받아들이다

메릴랜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메릴랜드]**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11일, 메릴랜드 주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지인 몽고메리(Montgomery) 시에 있는 록빌 도서관(Rockville library)에서 영상 강연회가 열렸다. 강연회에 앞서 동수들은 강연회 안내 전단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대안적인 삶’ 전단을 사람들로 붐비는 쇼핑몰과 지하철역에서 배포했다. 7월 4일에는 다양한 불꽃놀이 축제장에서 더 많은 전단을 배포했다. 또한 [www.bbschinese.com](http://www.bbschinese.com)에도 강연회 안내 소식을 게재했고 지역 케이블 TV에서 방영되는 우리 ‘예술과 영성’ 프로그램에도 광고를 내보냈다. 또 더욱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고자 이 카운티의 21개 도서관 분점에 전단을 배포하는 것도 허가받았다.

영상 강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은 모두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주의 깊게 보고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즐겁게 시청했다. 그들은 맛있는 채식 음식을 좋아했으며 명상에 관한 질문도 많이 했다. 방편법 전수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남아 스승님의 다양한 간행물을 감상했으며, 더러는 우리 협회 회원들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좀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무료 중국어·영어 뉴스잡지와 견본책자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일이 있어서 이번 강연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메일로 다음 행사 일정을 문의해 왔다.

메릴랜드 동수들은 이 멋진 경험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 큰 확신과 열정이 생긴 그들은 가까운 장래에 더욱더 많은 지역 홍보 활동을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태국

## 응급 처치 훈련

방콕 뉴스그룹 (원문 태국어)

**[방콕]**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5일, 오후 명상을 마친 뒤 간호사인 세 명의 방콕 센터 소속 동수들이 24명의 동수들을 대상으로 응급 처치 훈련 강좌를 열었다. 동수들은 보건부에서 제작한 비디오를 시청한 다음 시범을 통해 1. 부상과 지혈, 2. 뼈와 근육 부상, 3. 환자 고정하기'에 대한 처치법을 배웠다. 설명이 끝난 후 동수들은 방금 익힌 기술들을 연습했다. 참가자 모두 타인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된 것에 크게 감사했다.☀

## 대한민국

# 사랑에 잠겨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부산]**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26일 일요일, 부산 센터 동수들은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스승님의 영상 강연회를 열었다. 이 회관은 전에 스승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과 처음 만나셨던 곳이다. 이번 강연회는 부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협회 회원들은 이 행사를 홍보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다. 강연회 2주 전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에 광고를 붙여 두었는데, 포스터를 보고선 스승님의 이전 방문 때문에 스승님을 기억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시민도 여럿 있었다. 한 할아버지는 스승님을 아주 특별한 분이라 여기며 자기 집 대문에 포스터를 붙여 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강연회 당일, 강연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인파로 가득 찼다. 방문객들 모두 열중해서 스승님의 강연에 귀 기울였다. 한 방문객은 “예전에 강연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해가 되는군요.” 하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뒤 102명이 방편법을 배웠다. 방편법을 전수 받은 이들은 두 눈이 초롱초롱 빛났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 가운데에는 시사월간지 『뉴스 포커스(NewsFocus)』의 기자 두 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원래 취재차 행사장을 찾았다가 스승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아 결국 방편법을 배우기에 이르렀다. 방문객들은 풍성한 채식 요리를 먹으며 ‘진정한 영웅’ 비디오를 시청했다. 다들 모든 음식들이 아주 맛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이번 강연회를 안내해 주신 스승님의 축복에 감사 드린다.



## ‘수프림 마스터 TV’가 전역에 보급되다

서울·부산 뉴스그룹 보도 (원문 한국어)

**[서울]** 협회 회원들은 지하철·버스·신문·잡지 등에 광고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대안적인 삶’ 전단을 대중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있는데, 매주 5일씩 밖에 나가 배포하는 전단이 약 4천 장에 이른다. 동수들은 동네마다 다니며 주민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고, 차에 끼워 놓고, 주택 우편함에 넣어 두고, 길





거리 신문 가판대에 놓아두고, 주택지와 학교 게시판에 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소식을 전한다. 또 때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각급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하기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전단에 큰 관심을 보였다.

## 신의 사랑의 메시지가 1년간 전시되다

**[부산]** 부산 센터는 이동식 휴대전화 무료 충전기 광고판을 통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알리기 시작했다. 이번 광고 계약은 2007년 7월 28일부터 1년간 유지된다. 서면 CGV, 장전동의 O2시네마, 해운대 스피지 메가박스 등에 부착된 우리 광고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 잡지사의 고상한 보도 기사



**[부산]** 황금시대 4년

(2007년) 8월 26일 부산에서 열렸던 스승님의 영상 강연회를 취재하러 왔던 『뉴스포커스』 기자들이 스승님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방법론을 배웠다. 그들은 9월호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관한 2페이지 분량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그들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긍정적이고 평화적이며, 더욱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도록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대해서는, 자아 실현과 전세계에 걸친 인도주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비영리 단체라고 소개하면서 스승님과 관음법문, 우리 단체의 봉사 활동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 엄마랑 함께하는 채식 요리

**[부산]**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7일과 8일, 채식과 채식 요리법에 관한 강좌가 위봉 초등학교와 성천 초등학교



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활동은 부산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엄마랑 함께하는 채식 요리’ 강좌에서는 채식의 중요성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 35명가량의 5·6학년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강좌에 참석했다. 비디오 강연이 끝난 뒤 몇몇 학생들은 바로 “채식을 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이들의 식단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 사저가 시범을 보인 채식 닭고기 요리는 나중에 동수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와 함께 제공되었다.

약 10명의 동수들이 합심하여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긍정적인 생각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지구를 보호해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일을 실천하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언제라도 스승님의 도구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보람 있었던 영상 강연회

**[춘천]**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16일 일요일, 춘천 봄내 극장에서 영상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비가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연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시청한 후 채식 요리를 대접받았다. 사람들은 어떤 요리에도 고기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선 이렇게 맛있는 채식 요리를 먹어 보긴 난생 처음이라며 놀라워했다. 어떤 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음식을 짜다 드리고 싶어했다. 마지막에 8명이 방편법을 배웠다. 춘천에서 열린 두 번째 영상 강연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도와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 포모사

## 영성의 진선미를 선보인 ‘황금배의 출항’ 예술 전시회

타이난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난]** 9월 1일부터 16일까지 동수들은 국립 타이난 사회교육관에서 칭하이 무상사 예술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황금배의 출항(啓航黃金船)’이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회에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친지, 친구들을 데리고 예술과 영성의 진선미를 감상하러 왔다.





9월 1일 개막식 날에 열린 다과회에서는 타이난의 유명 중국 음악인들과 서양 음악인들이 초청 공연을 했고 20명의 유명 서예가들도 현장에서 붓을 놀려 멋진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많은 귀빈들이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10여 곳의 텔레비전 방송국과 다른 매체 보도진들이 행사를 취재하러 몰려들었다. 타이난 시정부 비서 천젠궈(陳建國) 씨는 치사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위대한 재능과 인격을 지닌 영적 스승이라고 격찬하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 사회가 진선미를 추구하는 스승님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 선량한 풍조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9월 2일에는 '영성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예술계와 문화계의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통해 일반 대중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시와 예술 세계를 탐색하도록 이끌었다. 16일에 열린 '다채로운 세상' 행사에서는 스승님의 다양한 예술 창작품들이 패션쇼, 라이브 음악 공연, 슬라이드 쇼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다. 참석한 이들 모두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 영적인 깊은 의미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찬 살아 있는 스승의 예술 작품들이 타이난 시민들에게 널리 소개되었고, 그에 따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 작품 전시회 기사를 실은 『중화일보(中華日報)』와 『연합보(聯合報)』.

『중화일보(中華日報)』 사진 설명: 사회교육관에서 그림·시·음악·보석 디자인·패션 디자인·공예품 등 다방면으로 재능이 뛰어난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 작품 전시회가 개최되어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끌었다. (사진: 자오촨안[趙傳安])





## 지속적인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홍보 노력

포모사 뉴스그룹 정리·보도 (원문 중국어)

신의 은총으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7일부터 핫버드(Hotbird) 위성과 아스트라(Astra) 위성 두 곳에서 동시에 방영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포모사 동수들도 전세계 방방곡곡에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관한 소식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 가장 대중적인 평면 매체 광고

포모사 각 센터는 7월 24일부터 국내 여러 주요 신문과 잡지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최근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건강세계(健康世界)』 잡지는 무료로 네 편의 기사를 실어 주었고, 『유페이퍼(Upaper, 台北捷運報)』 역시 우리의 활동 소식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게재했다. 대중에게 고귀한 생활 방식과 긍정적인 소식을 알리는 데 관대하고 애정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 다른 나라의 홍보 활동 돕기

포모사 센터들은 또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 긍정적인 소식을 자국에 알리도록 도움을 주었다. 활동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최대 신문 『마닐라 불러틴(Manila Bulletin)』에 수십 차례 광고 게재.  
 파키스탄 최대 신문 『데일리 익스프레스 뉴스(Daily Express News)』에 10여 차례 연속 광고 게재.  
 캄보디아의 『커머셜 뉴스(The Commercial News)』와 『코산테heap 일보(Kohsanteheap Daily)』  
 네팔의 『켄티푸르 일보(Kentipur Daily)』  
 방글라데시의 『데일리 이테파크(The Daily Ittefaq)』과 『프로톰알로(Prothom-Alo)』  
 부탄의 『쿠엔셀(Kuensel)』과 ‘부탄 국영 방송 채널(Bhutan National Television Channel)’  
 스리랑카의 『선데이 타임스(Sunday Times)』  
 이스라엘의 『예디오토 아로노트 신문(Yediot Ahronot Newspaper)』  
 인도의 3대 신문인 『인도 타임스(Times of India)』, 『뭄바이 미러(Mumbai Mirror)』, 『벵갈로르 뭄바이 미러(Bengalore Mumbai Mirror)』와 힌두어로 발간되는 『다이니크 자그란 일보(Dainik Jagran Daily)』  
 태평양 사모아 섬의 『사모아 뉴스(Samoa News)』  
 솔로몬 제도의 『솔로몬 스타(Solomon Star)』, 바누아투의 『바누아투 데일리 포스트(Vanuatu Daily Post)』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의 프랑스어 신문 『뉴벨 칼레도니아양(Les Nouvelles Calédoniennes)』  
 미크로네시아(Micronesia)의 『카셀렐리 프레스(Kaselehlie-Press)』  
 파푸아뉴기니의 『쿡 아일랜드 뉴스(Cook Islands News)』, 『내셔널(The National)』, 『디스커버(Discover)』  
 브루나이의 『보르네오 불러틴(Borneo Bulletin)』, 『미디어 페르마타(Media Permata)』  
 북마리아나(Northern Marianas)의 『사이판 트리뷴(Saipan Tribune)』  
 마셜 제도의 『마셜아일랜드 저널(Marshall Islands Journal)』  
 피지의 『피지 타임스(Fiji Times)』, 『피지 카일라(Fiji Kaila)』, 『피지 샐티뎃(Fiji Shanti Dut)』  
 오세아니아 여러 섬에 배포되는 『아일랜드 비즈니스(Islands Business)』  
 타지키스탄의 ‘사피나 TV(TV Safina)’ 방송국, 『다지스트-프레스(Dajdzhest-Press)』, 『차르시 가든(Charxi Gardu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의 『비즈니스 레클라마(Biznes Reklama)』  
 키르기스스탄(Kirgizstan)의 『중앙아시아 타임스(The Times of Central Asia)』, 『베체르니 비쉬케크(Vecherny Bishkek)』(러시아어판)  
 그루지야공화국의 『그루지야 타임스(Gruziyan Times)』, 『그루지야 트블리시(Gruziya Tbilisi)』  
 카자흐스탄의 『플리우스(Plyus)』와 『타임스(Times)』  
 우즈베키스탄의 ‘마르카즈 TV(TV Markaz)’  
 극동 오만(Oman)의 정부 기관지  
 쿠웨이트의 『알 와탄(Al Watan)』  
 시리아의 『티쉬린 데일리(Tishreen Daily)』  
 레바논의 『오리앙 드 주르(Le ‘Orient de Jour)』  
 다카의 『알 라야(Al Raya)』  
 사우디아라비아의 『샤르 알 아와삿(Sharq Al Awsat)』과 지역 내 13개국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알 하얏(Al Hayat)』  
 러시아의 『아이프(AiF)』  
 벨로루시의 『베체르니지 신문(Vechernij newspaper)』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인 리오 센스 자갈노미스카(Ukraine RIO Sens Zagalnomiska)』

또 우리는 팜 센터를 도와 최대 영자신문인 『퍼시픽 데일리 뉴스(Pacific Daily News)』와 최대 중국어 신문인 『화음시보(華音時報)』에 연속해서 10여 차례 광고를 내보냈다. 효과가 아주 좋아서 많은 이들이 광고를 보고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전화를 걸어 왔다. 이 밖에 통가 왕국의 관영 신문인 『통가 크로니클(Tonga Chronicle)』의 경우

무료 광고를 실어주기도 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문이자 인근의 여러 섬 주민들이 평소 즐겨 보는 신문이기도 한 『통가 크로니클』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문을 무료로 통가어로 번역해 주고 완전 무료로 두 차례에 걸쳐 자기네 영자신문에 눈에 띄는 광고를 내보내 주기까지 했다. 그들의 열성적이고 자비로운 도움에 동수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관대하고 애정 어린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 간판, 인터넷 TV,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광고

**타**이베이 시와 타이베이 현의 동수들은 계속해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간판과 포스터를 변화한 상업 지역과 관광지에 있는 상점에 설치, 게시해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동수들이 문을 연 채식 식당에서도 식당 홀에 인터넷 텔레비전 시설을 설치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인터넷상으로는 웹사이트 <http://www.dsopen.com/>의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지점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를 계속해서 올려 두었다. 이용자들은 그 광고를 클릭하기만 하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 홍보용품 배포

여름 방학 동안 우리는 전국 여러 대학 시험장에 가서 '대안적인 삶' 부채·서류 폴더·다목적 테이블매트, 그리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안내 전단을 배포했다. 또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re) 내 전시관에서 도 전단을 배포했다. ☀



## 주요 연락처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mailto: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mailto:TV@Godsdirectcontact.org)

###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mailto: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mailto: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mailto: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mailto: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mailto: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mailto: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mailto: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SM 보석·천의·만세동·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파리 선삼(禪三)

# 방은 작아도 사랑은 무한하다

독일 뒤스부르크 뉴스그룹





**을** 여름, 우리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값진 일은 스승님과 함께 선행사를 했던 것이다. 이 '침묵 선행사'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파리 근교에서 조용하고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 가운데 열렸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발산된 그 사랑은 그들의 얼굴뿐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선행사 일정마저 하트 모양 속에 적혀 있었다.

올해 8월에 파리는 무척이나 후덥지근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를 밤낮으로 쏟아져 온 세상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아침·저녁 식사를 위해 몇 차례 쉬는 시간을 빼고는 밤낮으로 명상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에는 작고 아늑한 방에서 스승님 주위에 둘러앉아 스승님의 개들과 새들을 찍은 영상을 보기도 했다.

스승님께서서는 간소하게 살 것을 상기시키셨다. 삶이 단순할수록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시간에 쫓기는 스승님은 식사도 아주 간단히 하시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면 다른 유익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승님은 또한 세상을 둘러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영웅적인 사람들이란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180도로 바뀌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아주 용감하고 강한 의지력도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스승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셨다. 술, 담배, 고기, 그리고 깊이 뿌리 박힌 습관들을 버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신의 이상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는 몇 안 되는 사람들로서, 소박한 삶을 살고 채식과 명상을 하며 인류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

이번 선행사에서 있었던 가장 주목할 만한 일 중 하나는, 스승님께서 직접 쓰신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출간에 맞춰 포모사의 매체 및 독자들과 화상회의를 가지신 것이다. 스승님은 이 책을 통해 일반 동물들, 특히 당신의 새들이 지닌 비밀들을 알려 주셨다. 동물은 인류와 똑같은 영혼을 지녔으며,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조력자가 되도록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우리가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스승님께서서는 새나 개, 혹은 다른 동물들을 무조건적으로 돌보고 사랑한다면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계발될 것이라고 하셨다. 동물이 인간보다 텔레파시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텔레파시 능력 또한 차츰 계발된다는 것이다. 백조와 같은 새들은 5천 년 전의 과거도 회고할 수 있으며 대단히 예민하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고, 누가 우리에게 이롭고 해로운지도 알려 기꺼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자 한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면 동물들은 우리에게 매우 고마워하며 그때 그때마다 금전·건강·행복과 같이 보이지 않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우리 사업을 돕는 등 여러 일들을 해준다. 사람들은





종종 신이나 천사에게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신께서 이미 많은 천사들을 그들 주변에 안배해 놓으셨음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무지 때문에 이 자비로운 중생들을 죽이고 잡아먹고선 질병이나 재난이 닥치면 신을 탓한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스승님이 지난번 포모사 선행사에서 해주신 이야기를 떠올렸다. 한 가난한 이가 거북이의 목숨을 살려 줌으로써 훗날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였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만 했다면 서로 살생하는 것이 완전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일임을 깨달아서 모두들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행동을 달리해 좀더 자비로워진다면 그에 따라 더욱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살고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데, 왜 배를 채우기 위해, 살기 위해, 혹은 돈을 벌기 위해 동물을 죽여야 하는가? 결핍과 고통은 모두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번은 스승님께서 ‘숭고한 품성(Noble Quality, NQ)’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의 선천적 품성으로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행하는 고귀한 행동을 통해 차츰차츰 계발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숭고한 품성은 확장될 수 있다.

스승님 말씀에 따르면, 인도 사람들의 숭고한 품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것은 그들이 신을 믿기 때문이다. 인도인은 대부분 채식주의 하며, 자연스레 신을 믿는다. 또한 모두에게 신의 품성이 있다고 믿기에 다른 이들을 극진히 대한다.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그들은 가능한 한 정성껏 손님을 맞이한다. 마실 물조차 부족한 가난한 마을에도 손님을 환대하는 이런 마음은 존재한다. 이는 그들이 이 숭고한 품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숭고한 품성은 외적인 행동이나 얼마나 많이 돕는가로 판단할 수 없다. 그 노력의 진실함에 달린 것이다.

스승님은 모든 역경과 위협을 극복하고 재난 지역에 가서 이재민들에게 원조와 구호 물자를 제공해 준 동수들에게 크게 감사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스승님이 돈을 보내시긴 했지만 이 동수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스승님의 금전적 선물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승님은 우리 도움이 다른 구호 팀의 일에 비하면 그리 대단치 않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제일 먼저 재난 지역에 도착한 구호 팀임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값진 것이라고 하셨다. “끓주릴 때 쌀 한 톨이 배부를 때 쌀 한 가마니와 맞먹는다.”라는 어울락 속담처럼 말이다.

스승님은 과거의 스승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깨달은 스승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시를 쓰거나 작곡하는 것에서부터 농담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가르침이라고 하셨다. 또 스승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사람들은 종종 깨달은 스승은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 깨달은 스승은 외양이 어떠하든 깨달은 스승인 것이다. 큰스승은 이 세상을 돕고자 아주 높은 세계에서 내려온 영혼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거칠고 낮은 의식 세계에 태어나야 하며, 또한 그 자신이 정녕 누구인지 깨닫기 전까지는 어느 보통 사람들처럼 성장해야만 한다.

스승님은 고대 수행자들의 평온하고 자비롭고 소박한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어 주시기도 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스승님은 특별히 재미있는 농담들을 찾아 들려주셨다. 아마도 우리의 눈물샘을 막기 위해서



였을 것이다. 스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우리 모두 스승님 뵈기를 갈망했기에 헤어질 때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설 새 없이 일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청소하고 요리를 해준 파리 센터와 다른 여러 센터 동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당신 곁에서 성스런 선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인생에서 다시 없을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스승님의 성스러운 빛과 사랑이 멀리 퍼져나가 이 세상 모든 곳을 두루두루 환히 비추기를 기원한다. ☀



## 당신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독일 원월라이 라칸디 사저 (원문 영어)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선행사 기간 동안 아름답고 멋진 내 영혼의 어머니, 당신의 사랑에 한껏 취했습니다. 눈부시고 축복된 그 날들에 대한 느낌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내 영혼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당신의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에 감싸여  
고요한 사랑에 녹아듭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손길이  
만지지 않아도 나를 붙들고 계시지요.

온하수 건너  
생사의 삼계를 넘으니

당신은 내 가슴을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내 영혼을 끝없는 사랑으로 울려주십니다.

당신의 한없는 은총에  
두 눈은 축축하게 젖어 듭니다.



## 식물인간 환자들을

## 사랑으로 돌보는 자오칭 씨 ♥♥♥♥♥♥♥♥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가난한 식물인간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는 자오칭 씨.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평범한 소시민 자오칭(曹慶) 씨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국 유일의 단체인 '창세사회복지재단(創世社會福利基金會, 창세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혼자서 포모사 각지를 돌며 모금 활동을 벌였다.

처음에 그는 중부 지방의 한 시골 병원에 있는 안 쓰는 병상을 몇 개 확보해 놓고 정부 보조금을 기대했다. 당시 그는 크고 작은 정부기관을 두루 찾아다녔지만 “정부도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여러 재단과 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2백 곳에 달하는 재단에 편지를 쓰고 그중 많은 곳을 직접 방문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1980년, 그는 배낭 하나를 메고 전국 각지를 돌며 무수히 많은 낯선 이들을 상대로 모금을 하는 5년간의 장정에 나섰다. 불행히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나 ‘사기꾼’으로 여겼다. 그렇지만 결국 모두 7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후원자 명단’에 연락처를 남기게 되었고, 더디고 지루한 과정 끝에 마침내 최초의 식물인간 요양원이 1986년 11월에 설립되었다. 당시 자오칭 씨는 병상을 마련할 돈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마침 이웃집에서 집을 새로 단장한다며 필요 없는 장롱들을 길에 내다버렸다. 그는 그것들을 주어와 거기에 나무 판을 덧대고 이불을 깔아 임시변통으로 침상을 만들었다.

수년간 일반 대중의 사랑 어린 도움을 받아, 식물인간 요양원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또 수많은 기적도 체험했다. 예컨대, 첫 달 지출액이 13만 NT였는데 받은 기부금도 정확히 13만 NT였다. 그 다음달에는 지출액이 18만 NT였는데 후원금 또한 정확히 18만 NT였으며 셋째 달에는 23만 NT를 지출했는데 들어온 후원금도 딱 그만큼이었다! 연속해서 이런 우연의 일치를 겪으며 자오칭 씨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의 사랑이 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식물인간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궤도에 오르자 자오칭 씨는 독거 노인과 노숙자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현재 창세재단에서는 독거 노인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집을 방문해서 보살피는 일 외에 ‘노인 및 정신장애인 의료원’을 설립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노숙자들과 관련해서는, 1991년부터 타이베이 완화(萬華) 지구에 평안 쉼터를 설립해 이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오칭 씨는 불굴의 노력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식물 상태의 환자들에게 존엄을 가져다주고 이들이 마땅한 보살핌을 받도록 해주었다. 집이 요양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도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느라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집에 들어간다. ‘요양원’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희생해 남을 돕는 그의 성인(聖人)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범이다. 🌻

참고 자료:

1. <http://www.genesis.org.tw/story.htm> (중국어)

2. <http://zh.wikipedia.org/wiki/%E5%89%B5%E4%B8%96%E5%9F%BA%E9%87%91%E6%9C%83> (중국어)

## 난민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캄보디아의 딸’ 양웨이링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정치적 격변과 내전을 겪던 캄보디아가 1993년 유엔의 지원으로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20여 년간 지속되었던 내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NGO)가 캄보디아에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데, 포모사의 ‘지풍초문교봉사협회(知風草文教服務協會)’도 그중 하나였다.

이 협회의 창립자인 양웨이링(楊蔚齡) 양은 원래 중화항공(China Airlines) 승무원이었다. 그녀는 공항에서나 비행 도중에 인도차이나 반

도의 난민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들에 대해 큰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 나중에 인권협회(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태국 난민 캠프에 가서 봉사할 자원 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그녀는 수입이 좋은 직장을 주저 없이 그만두고 한창 좋은 나이에 캄보디아로 가서 난민들을 사랑으로 보살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난민들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때로는 열악한 보건 위생 속에서 고열을 겪으며 건강을 해치기도 했고, 형편 없는 도로 여건에서 오래된 차량을 몰다가 여러 번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한번은 차가 골짜기로 굴러 떨어져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다. 이런 불행한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남을 돕고자 하는 그녀의 사심 없는 마음은 변할 줄을 몰랐다.



專訪在柬埔寨人道救援的  
楊蔚齡

文／邱麗文 圖片提供：楊蔚齡

「在那個環境下，生命顯得如此卑微。」  
——楊蔚齡在柬埔寨的親身經歷。不  
斷掙扎的內心，讓她毅然決定放棄國  
學之路，開展了完全不同的人生旅途——

집, 농촌직업훈련소, 두바사(Dubasa) 캄보디아어학교를 설립한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협회는 숙소 제공, 직업 훈련, 교육, 재난 구조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립·갱생하여 삶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캄보디아에서는 지풍초문교협회를 모르는 이가 없다. 교육부 장관 H. E. 콜 팽(H. E. Kol Pheng) 씨는 양웨이링 양을 ‘캄보디아의 딸’이라 부를 정도이다.

양웨이링 씨는 몸소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여러 책으로 출간했다. 감동적인 저술 활동과 사랑의 헌신으로 인해 그녀는 문예협회(文藝協會) ‘보도문학상(報導文學獎)’, 여류작가협회(婦女寫作協會) ‘신인작가상(文壇新秀獎)’, ‘우췌센사랑상(吳尊賢愛心獎)’, ‘십대최우수청년상(十大傑出獎年獎)’, ‘십대최우수여성청년상(十大傑出女獎年獎)’, 캄보디아 정부에서 수여한 ‘전후 재건 사업 협조 국제 NGO 일급 훈장’ 등 많은 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겸손하게도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받은 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양웨이링 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기 있는 정신은 고통 받는 캄보디아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주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나는 모범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행위와 업


캄보디아가 1993년에 평화를 되찾은 후 태국에 있던 30여 만 명의 캄보디아 난민들도 귀환하게 되었다. 당시 양웨이링도 4년 넘게 돌봐왔던 많은 난민들과 동행해 종종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했던 국경지대를 통과해 고향으로 데려다 주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는 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수히 많은 캄보디아 국민들이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음을 목격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양웨이링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모아 좀더 조직적으로 도움을 펼치기로 했다. 그래서 1995년에 ‘중화민국 지풍초문교협회(中華民國知風草文教協會)’를 설립했다.

그녀와 지풍초문교협회는 “이슬 한 방울이 풀잎 하나를 키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서 소외된 캄보디아 어린이를 위해 장학금을 모금했다. 또한 중국어 교재를 제공하고, 학사를 건설·수리하고, 도서관을 설립하고, 교사를 육성하는 등의 일을 하며 가난한 중국 교포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아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현재까지 만 명이 넘는 중국 교포 어린이들이 혜택을 입었고, 그 결과 많은 가정의 경제 형편이 나아졌다.

지풍초문교협회는 중국 교포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빈곤 가정들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집 없는 아이들의

적은 비범하기 그지없다. 그녀의 저서에 쓰인 말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진정한 강자는 전쟁을 일으켜 국토를 피로 물들이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마음·사랑·정성·봉사·헌신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평범한 사람이다.” ☀

지풍초문화교육협회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fra.org.tw/chservice\\_1.htm](http://www.fra.org.tw/chservice_1.htm) (중국어)

이야기 세상 

## 집으로 보내온 한 통의 짙막한 편지

B. L. /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중국어)

1990년 가을 어느 날, 시후 센터 본부로 배달된 한 무더기의 편지 사이에 인도 우표가 붙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책상에 가만히 놓여 있던 그 편지는 봉투는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부드럽고 매끄러운 필체가 매우 눈에 익었다. 뜯어 보니 인도에 잘 도착했다는 스승님의 편지였다.

“인도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다. 책임감을 갖는 것과 이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매일 떠올리고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결코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지만 그래도 짙막하게나마 안부를 전한다.

1990년 9월 20일 인도에서”

당시 스승님은 혼자 여행 중이셨는데 여전히 포모사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이 담긴 짙막한 편지를 보내신 것이다. 스승님은 또 편지 끝에 주소 두 곳을 적어 놓으셨다. 인도에서 알게 된 인연 있는 사람들의 주소였는데, 스승님은 미아오리 본부에다 그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책과 비디오를 보내 주도록 특별히 당부하셨다.

최근 스승님은 또다시 언제나 전단·견본서·경서·CD·DVD 등의 출판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해탈을 위한 최고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일깨워 주셨다. 17년 전에 있었던 이 작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먼 곳을 여행하시며 업무를 보시는 중에도 스승님은 잠시라도 사람들에게 해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천성적으로 인정이 많고 사람들을 도와 좋은 인연 맺길 좋아하시는 스승님은 지상에 머무시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동의 발자취를 남기셨다. ☀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빛**나는 세계 우수 지도자상은 인류를 위해 밝은 미래를 창조하고자 애쓰는 탁월한 인사와 빛나는 지도력을 표창하고자 칭하이 무상사께서 수여하는 영광으로서, 전세계의 정부·지도자·개인 자선가들의 모범적인 선행과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찬사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전달된다. 하트 평점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장려하기 위해 신이 보내시는 사랑의 상징이다.



### M S 스와미나단 교수에게 수여된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M S 스와미나단 교수에게 상패를 수여하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7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단은 인도 첸나이(Chennai)에 있는 M S 스와미나단 연구재단(M S Swaminathan Research Foundation, MSSRF)을 방문했다. 우리 협회 회원들은 MSSRF 창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M S 스와미나단 교수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해 ‘상록혁명(Evergreen Revolution)’을 통해 보여 준 그의 뛰어난 과학적 성과와 현명한 지도력을 표창했다. 스와미나단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과학 기술·공공 정책·사회적 조치의 공동 작용’

을 이용해 수년간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농산물 수확 개선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 이는 세계의 기근을 종식시키는 데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이를 통해 모든 인류가 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시상식에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는 먼저 상장을 읽은 뒤 우리의 사랑하는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하여 스와미나단 교수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상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명 인사와 귀빈들 중에는 유엔농업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사무총장 자크 디오프 박사(Dr. Jacques Diouf)와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of the United Nations)의 라틴아메리카·카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스승님께 감사를 전하는  
M S 스와미나단 교수.

루고 굶주림에서 해방된 시대로 나아가는 희망의 세기를(Predict: A Century of Hope towards an Era of Harmony with Nature and Freedom from Hunger)』에서 21세기를 “인간과 자연 간에, 인간 상호간에 조화가 이뤄지는 희망의 세기”로 내다보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방법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는 M S 스와미나단 교수의 뛰어난 지도력에 감사드린다. 보다 많은 이들이 그의 헌신적인 행위에 감화를 받아 우리 지구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자신의 재능을 헌신하길 바란다!☀

리브 해 지역 국장 페드로 메드라노 박사(Dr. Pedro Medrano)도 있었다. 여러 매체에서도 참석해 행사를 취재했다. 스와미나단 박사는 상패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분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깨우치시는 무상사께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선(善)을 대변하는 힘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는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무상사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스와미나단 교수는 크게 존경받는 과학자이자 작가로서 많은 저서를 집필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가운데 하나인 『나는 예견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



재단 창립 기념일 행사와 시상식에 참석한 청중들.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 티베트 동물보호자원봉사단에 수여된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TVA 대표들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과 기부금을 수여하다.



TVA 대표들이 우리 협회에 깃발을 증정하다.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9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단은 인도 뉴델리로 가서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해 티베트 동물보호자원봉사단(Tibetan Volunteers for Animals, TVA) 측에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해 동물의 권익과 채식주의를 주창한 그들의 뛰어난 공로를 표창했다.

사랑하는 스승님은 TVA의 고귀한 대의와 세상을 고양시키기 위한 평화 노력을 후원하고자 미화 5천 달러도 기부하셨다.

빽빽한 예산과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동물보호자원봉사단 단원들은 인도·부탄·네팔 내 200곳이 넘는 티베트인 거주지에서 채식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TVA 사무국장 롭상 몬람(Lobsang Monlam) 씨는 불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모든 티베트인들의 마음이 자비롭다고 믿는다. 평생 채식을 하겠다고 서약하고 서명한 1만 5천 명이 넘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 보내신 상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작은 개미에서부터 코끼리나 고래처럼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중생이 동등한 생존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전세계 동물 왕국이 감사하고 있으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대중들에게 채식주의를 교육시킴으로써 세상의 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세계가 새로운 황금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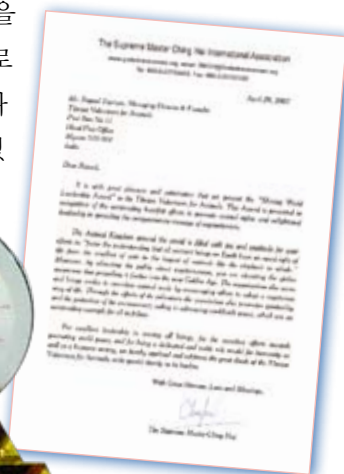
TVA 대표들에게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달하다.

티베트 동물보호자원봉사단을 대표해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룽상 몬람 씨는 이를 크게 영광스러워했다. 그는 우리의 사랑하는 스승님께 자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에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자신들이 동물들을 위해 평생 일하겠다고 서약한 맹세를 새롭게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승님의 격려에 힘

입어 모든 이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중생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일하는 티베트 동물보호자원봉사단에 존경을 표한다. 채식은 장려하고 지구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애쓰는 그들의 모든 노력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한다.☀



### 이달의 수상자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 하트 7 ♥♥♥♥♥♥♥♥—호주 외무부

호주 외무부가 열대성 폭우로 재해를 입은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수재민을 긴급 구호하기 위해 호주화 22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다.

#### 하트 7 ♥♥♥♥♥♥♥♥—중국

중국이 가이아나(Guyana)의 채무 미화 1,530만 달러를 면제해 준다.

#### 하트 7 ♥♥♥♥♥♥♥♥—러시아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의 미화 110억 달러의 부채를 90% 면제해 준다.

#### 하트 6 ♥♥♥♥♥♥♥♥—모리타니아의 시디 올드 체이크 압델라히(Sidi Ould Cheikh Abdellahi) 대통령

모리타니아의 압둘라히(Sidi Ould Cheikh Abdellahi) 대통령이 노예제 철폐를 약속하며 관료들에게 이런 사례를 알 경우 단속하도록 명령을 내리다.

#### 하트 6 ♥♥♥♥♥♥♥♥—크리스토퍼 혼

영국의 크리스토퍼 혼(Christopher Hohn)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어린이투자기금재단(Children's Investment Fund Foundation) 설립에 2억 3천만 파운드를 기부하다.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 하트 6 ♥♥♥♥♥♥♥-피터 크루다스

영국의 피터 크루다스(Peter Cruddas)가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1억 파운드를 출자해 재단을 창설하다.

### 하트 6 ♥♥♥♥♥♥♥-미국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Tadzhikistan)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에 미화 3천 7백만 달러를 제공하다.

### 하트 6 ♥♥♥♥♥♥♥-남한

남한이 홍수 지원금으로 북한에 미화 75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다.

### 하트 6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본국으로 송환된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CAR) 국민들과 다르푸르 출신의 수단 난민들을 돕기 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4백만 유로를 기부하다.

### 하트 6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자국의 무역원조(Aid for Trade) 프로그램에 520만 유로를 추가 제공할 것을 공약하다.

### 하트 6 ♥♥♥♥♥♥♥-노르웨이

노르웨이 외무부가 파키스탄 구호금으로 미화 250만 달러를 제공하다.

### 하트 6 ♥♥♥♥♥♥♥-이란

이란이 이라크의 전화 통신 체계 재건을 돕기 위해 이라크에 미화 5백만 달러를 지원하다.

### 하트 6 ♥♥♥♥♥♥♥-카를로스 슬림 헬루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 헬루(Carlos Slim Helu)가 어린이들에게 노트북 컴퓨터 125만 대를 제공키로 약속하다.

### 하트 6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케냐의 여러 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60만 유로(미화 36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다.

### 하트 6 ♥♥♥♥♥♥♥-나이로비

케냐 나이로비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하다.

### 하트 6 ♥♥♥♥♥♥♥-유럽연합, 유니세프, 지부티 정부

유럽연합, 유니세프(UNICEF), 지부티(Djibouti) 정부가 공동으로 지부티에서 용수 공급 및 위생 사업을 실행하다.

### 하트 6 ♥♥♥♥♥♥♥-맷 데이먼과 프랭크 마샬

미국 배우 맷 데이먼(Matt Damon)과 연출가 프랭크 마샬(Frank Marshall)이 어린이센터(Children's Center)를 위한 모금 활동을 벌여 질병과 신체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돕다.

### 하트 5 ♥♥♥♥♥♥♥-프랑스

프랑스가 어울락(베트남)의 농촌 개발을 위해 1백만 유로를 제공하다.

### 하트 5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네팔 홍수 이재민을 긴급 구호하기 위해 50만 유로를 제공하다.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 하트 5 ♥♥♥♥♥-무타리카 대통령

말라위의 무타리카(Bingu wa Mutharika) 대통령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남아프리카 국가들에 남은 농작물 식량을 기부하다.

### 하트 5 ♥♥♥♥♥-핀란드와 이디오피아

핀란드와 이디오피아가 암하라(Amhara) 지역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협력하다.

### 하트 5 ♥♥♥♥♥-진 매든

호주 브리즈번의 진 매든(Jean Madden)이 노숙자들에게 노숙용 침낭을 제공하다.

### 하트 5 ♥♥♥♥♥-오피르 드로리

이스라엘의 오피르 드로리(Ofir Drori)가 카메룬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유인원(The Last Great Ape, LAGA)' 단체를 공동 설립하다.

스승님의 농담

## 부서운 개를 피하세요!

칭하이 무상사/ 2003. 2. 3.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불구불한 시골 길을 운전하고 있던 어느 남자가 열심히 뛰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큰 개 세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 뒤를 쫓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끼익 하고 차를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어 소리쳤어요. “어서 타요, 어서 타!” 그러자 젊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군요! 대개는 저한테 개 세 마리가 있는 걸 보고 태워 주지 않던데요!” ☀



스승님의 농담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감상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90/jk1.htm>

<http://www.Godsdirectcontact.us/sm21/enews/www/190/jk1.htm>





## 빛나는 세계 영웅상



## 고귀하고 사랑이 넘치는 물소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2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 협회 대표들은 중국 쓰촨 성(四川省)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 주인을 구한 용감한 물소(관련 기사는 뉴스잡지 187호 참고)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시상하고 인민폐 1,500원을 전달해 물소 주인이 그에게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사 먹일 수 있게 했다.

시상식이 있기 전, 대표들은 물소를 둘러싸고 차례로 물소한테 다가가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다. 그런데 황 사저가 물소에게 다가갔을 때 풀을 먹고 있던 물소가 갑자기 사저에게로 고개를 돌리곤 그녀의 신발을 계속해서 핏아냈다. 이어서 물소는 고개를 들어 황 사저의 오른쪽 허리에 머리를 대곤 마치 안마를 해주듯 다정하게 비벼댔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물소가 왜 황 사저에게 저렇게 특별하게 굴까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 물소의 이러한 행동에 황 사저가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말할 것 없다.

알고 보니 황 사저는 전날 밤 급성담석증으로 병원에 실려가 응급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복부 통증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라앉았다. 여전히 몸이 허약한 상태였지만 황 사저는 이 멀리까지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



스승님의 뉴스잡지와 서적을 즐겁게 읽고 있는 물소 주인.

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대표들과 함께 새벽부터 나섰다. 영성이 높은 이 물소는 황 사저가 아픈 몸을 이끌고 특별히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았던 게 분명하다. 그래서 겸손하게 황 사저 신발의 먼지를 핏아서 닦아 주고 그녀의 아픈 부위를 살살 어루만져 줌으로써 그녀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감동해 마지않았다.

우리는 주인에게 물소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칭찬을 전한 뒤 물소에게 가서 스승님께서 수여하신 상과 스승님의 법상을 보여 주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용감하게 사

# 빛나는 세계 영웅상



람을 구한 사실을 스승님께서 알고 계신다. 너를 매우 사랑하시는 스승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상을 주라고 하셨어. 이분이 스승님인 걸 알고 꼭 기억하도록 하렴.” 물소는 우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스승님의 법상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윽고 물소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두 볼을 타고 흘러 내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 마을 주민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물소가 사랑하는 이를 봤나 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물소가 살아 계신 큰스승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린 것임을 알았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리는 동물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목격할 수 있었다. 그들의 직관은 인류보다 더 예리하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 그들은 몇 배의 사랑으로 보답한다.

**후기:** 9월 15일, 동수들은 물소가 가장 좋아하는 사탕옥수수과 당근을 사 가지고 물소를 다시 한 번 찾아가다. 주인은 물소가 채소를 아주 즐겨 먹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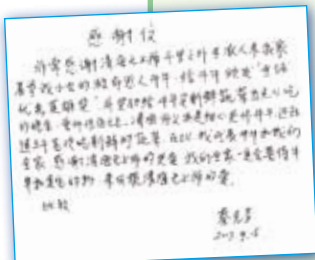
## 물소 주인의 감사 편지

### 친애하는 칭하이 무상사님께

이렇게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시어 제 딸의 ‘생명의 은인’인 샤오뉴뉴(小牛牛)에게 상도 주시고 신선한 야채를 사 먹일 인민폐 1,500원을 상금으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과 샤오뉴뉴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샤오뉴뉴와 다른 동물들을 잘 보살펴서 스승님의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 9. 2.

차이셴펀(蔡先芬) 올림







## 우리의 인간 품성과 숭고한 품성을 개발하자

뉴스잡지 189호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후속편

칭하이 무상사/ 2007. 7. 1. 영국 서리 센터와의 전화 통화 (원문 영어)

그러니 인류는 숭고한 품성(NQ)과 인간 품성(HQ)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무아의 마음이 될수록 NQ가 많아집니다. NQ가 많아질수록 HQ도 많아지지요, 그러면 등급이 점점 더 높아져 천국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업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일, 매 순간마다 가능한 한 언제나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존재가 되는 것, 이 방법 말고는 물질세계의 이 끔찍하고 고통스런 환상에서 자신을 고양시킬 길이 없습니다.

비록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의식이 고양되긴 했지만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무른다면 더 높은 경지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해탈했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사람들처럼 스승의 힘이나 신의 은총, 혹은 천국의 축복 덕분에 이번 생에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등급에는 오르지 못하고, 그저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수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물속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험난하고 위험한 바다에서 구해



내서 안전한 해변으로 데려다 놓았다고 칩시다. 그럼 해변에 다다른 그 사람은 이제 안전합니다. 더 이상 물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어야 합니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요. 걸어서 집과 음식이 있고 문명이 있는 편안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에 서 있으면 거기에 있게 되겠지요! 내 말 알겠습니까? (대중: 예)

이 세상 사람들, 또는 우리 제자들은 어느 수준까지 고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의 고통이나 불쾌한 일들, 또는 슬픔을 유발하는 어떤 일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발로 걸어야 합니다. 좀더 고귀해져야 합니다. 좀더 무아의 마음이 되고 무조건적이고 자비로워져야 하며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고양될 것이며, 이 물질세계의 삶을 끝낸 후에는 훨씬 더 높은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 무상한 물질세계 너머의 것을 열망하라

어쨌든 이 물질적인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 물질적인 삶에 대해 그토록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질적인 삶 때문에 전쟁을 하고 이 덧없고 무상한 육체 때문에 서로를 죽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이나 어제보다 좀더 많이 먹는다면, 예, 기분이 좀더 좋고 보기도 괜찮고 좀더 통통해 보이겠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결국에는 1평방미터의 땅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지요! 아니면 재로 변하든가요. 자기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아니면 어딘가 천장에 매달려 다른 사람들이 그 몸을 천천히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먹습니다.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다들 벌레 밥이 되고 맙니다. 물이나 바다에 던져지면 물고기 밥이 되고요. 우리의 이 육신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업장을 짓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만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덧없는 작은 육신을 위해 전쟁과 싸움을 통해 다른 이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라 한들 뭐가 다릅니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이 육신의 지위가 어떠한지 얼마나 오래가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덧없고 무력한 이 육신에 매달려 있습니다.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이웃보다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좀더 힘있는 차를 갖기 위해, 또는 남들 위에 서는 좀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해치고, 동료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동물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고요. 동물들은 안 그래도 무력합니다. 이미 아득한 옛날부터 아무런 힘도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인간에게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이 살아가는 동족들을 말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이나 아프간 사람들도 미국인·영국인·프랑스인·이탈리아인과 거의 똑같이 살고 사랑하며 행동합니다.

국적이 어떻든 사람들의 행위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땐 그들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상대를 껴안습니다. 미국인이나 유럽인, 아시아인, 다른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이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도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며, 또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합니다.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 옷을 입고 팝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종족끼리 싸우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든 싸움, 범죄, 갱단이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것들인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숭고한 품성과 인간 품성이 부족해서 그





런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높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NQ와 HQ가 부족하다 해도 관음법문을 수행하거나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스승을 따르고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더 낫습니다. IQ가 낮건 높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능이 낮은 건 괜찮습니다. 심지어 NQ와 HQ가 낮더라도 높은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고귀한 사람이 되고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음법문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큰스승의 가르침이 있다면 높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책입니다. **모든 교파, 모든 가르침 가운데 관음 법맥, 관음 가르침, 관음법문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법문들, 훌륭한 종교나 가르침 같은 ‘모범적인’ 경우는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중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것이 결국 NQ와 HQ, 숭고한 품성과 인간 품성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조건적이고 자애롭고 인자하며 무아의 존재가 됨으로써 이런 품성을 발전시키고자 애써야 합니다. 또한 명상도 하고 스승의 가르침도 따라야 합니다.

이건 사실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급한 동기로 뭔가를 할 때마다 자신을 꾸짖고 명상하고 고귀한 의도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누구도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있을 순 없습니다. 스승조차 육신으로 24시간 함께하며 여러분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고 올바른 길로 되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스승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은 여러분이 스승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성인(聖人)입니다.**

성인이 되는 건 큰 책임감이 따릅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됐어, 난 성불했어. 세상에 할 일이란 없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말하자니 그렇다는 것 뿐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의미는 과거의 습관처럼 경쟁할 필요가 없고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웃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 친구’가 있다고 배우자를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의 기준에 못 미치는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말일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 ‘천하본무사’의 진정한 의미

선사들이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난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함이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예고 없이 하는 거지요.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훌륭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고귀하다. 나는 자비롭다. 나는 관대하다.’와 같은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더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1만 달러를 기부할 경우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관대한 선행이란 걸 알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 “나는 훌륭하고, 관대하다.”라는 식으로 기록해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일반적인 선행의 하나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로 여길 뿐이지요.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너그러운 선행이라고 생각할 뿐, 예고로써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훌륭하지 않은가? 신이시여, 제가 훌륭하지요? 보세요, 제가 훌륭하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거나 ‘상을 좀 주세요!’, ‘신이시여, 왜 제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나요? 제가 1천 달러를 자선했는데 제 삶에 아무 일도 없다니, 어찌된 일이지요?’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사들과 깨달은 선 수행자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만 듣고 집에 마냥 앉아 있거나 외식이나 하고 아무 일도 안 해선 안 됩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신을 기억하고 신이 행위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으로서의 품성을 약간이나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른바 ‘선행’이라는 것을 할 기회가 있다면 언제라도 마음으로 신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함’이 없는 ‘함’입니다. 또한 그것이 선종에서 말하는 ‘천하에는 본래 일이 없다(天下本無事)’의 의미입니다.

선사들이 말하는 ‘천하에는 본래 일이 없다’는 말은 **예고 없이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아의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더 이상 제도할 중생이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일단 깨닫고 나면 “아, 일이 끝났다. 더는 제도할 중생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는 집에서 깨달음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같은 상황이나 무지의 늪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들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전에 어리석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 모든 고통을 이웃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후에는 아무 할 일이 없다거나 제도하고 구원해야 할 중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깨달은 후에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면서도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듯, 가려운 데를 긁듯,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태양이 빛을 발산하면서도 자신이 위대하다고 떠들거나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듯이, 또는 자신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듯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사들이 “됐다. 나는 이제 거기에 도달했다. 나는 그것을 얻었다. 더 이상 제도할 중생이 없다.”라고 한 의미입니다. ‘천하에는 본래 일이 없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지요. 왜냐하면 무아의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 있는 힘껏 좋은 가르침을 전파하라

됐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대중: 예.) 가서 여러분 육신을 돌보고 다시 돌아와 영혼을 돌보도록 하세요. (대중: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를 돌보세요. ‘천하에는 본래 일이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에요. 천하에는 본래 일이 없지만, 우리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있는 힘껏 좋은 가르침을 전파하세요. 그러한 가르침이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을 막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일을 막아줄 것이며, 심지어 이 지구가 파괴되는 일을 막아줄 테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화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이 지구를 위해 뭔가 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화성처럼 될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걸 보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화성에도 한때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 같았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발전시켰고, 그 발전 속도가 지금의 우리처럼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말라버리게 된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 뭔가를 하세요. 카풀을 하고 버스를 이용하세요. 언제든 최대한 전기를 절약하도록 하십시오. 얼마가 되었든 절약하세요, 알겠어요? (대중: 예, 스승님)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놓으세요. 이 얘기는 이미 오스트리아 선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좀더 오래 살면서 명상하고 싶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뭐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 가스를 사용해 요리하는 게 낫다면 가스를 사용하세요. 꼭 가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말은, 집에서 오염이 덜하거나 에너지 소비가 적은 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전기를 생산하려면 많은 것들이 소요되지요. 그런 것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들이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달린 것이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으면 뭐든 하세요. 그래야 이 지구에 좀더 머물며 명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

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가르침을 전파하고, 의식을 전파하고, 선(善)과 도덕 기준을 전파하십시오. 인류와 이 행성에 이로운 일이라면 무엇이든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하세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전원 대기 중인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전부 뽑아놓습니다. 두세 개의 콘센트 구멍이 나란히 나 있고 스위치가 달려 있는 멀티탭에 플러그를 다 같이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멀티탭의 스위치를 켜고 끌 때 불이 꺼지면서 모든 가전기기가 한꺼번에 꺼집니다. 일일이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끌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전대 어떤 전화기의 충전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그 플러그를 뽑거나 그 구역의 전원을 차단해 한꺼번에 끄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원 대기 중인 전등의 플러그를 모두 하나의 멀티탭에 꽂아 두었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나 밤중에는 멀티탭을 가지고 모두 다 꺼 놓습니다. 방에서 나갈 때는 멀티탭의 스위치를 끄고 안에 들어오면 다시 켕니다. 뭐하러 대기 상태로 놔둬니까? 돈만 나가고 지구를 오염시킬 뿐이지요. 됐어요. 여러분에게 숭고한 품성과 인간 품성에 대한 열망을 남겨 주겠어요. HQ와 NQ를 기억하도록 하세요. 축복 가득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대중: 스승님,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



# 심금을 울리고 대중적 인정을 받은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신간 발표회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께서 직접 집필한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The Birds in My Life)』은 시적이고 매혹적인 사진과 글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새들의 순수하고 천진한 감성 세계를 경험하고 ‘만물동일체’를 깨닫게 해준다. 이 귀하고 매혹적인 책을 포모사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는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24일 킹스턴서점(金石堂), 중화텔레콤국제회의장(中華電信國際會議中心), 사랑의 바다 문예광장(愛海藝文廣場) 등 세 곳에서 동시다발로 신간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신학우서점(新學友書局)의 출판업자 쑤시즈(蘇西姿) 여사(사진 1), 국제라이온스클럽 300A1 지구장 장뤼장(張呂章) 씨(사진 2), 독일의 유명 영화감독 헬무트 니취케(Helmut Nitzschke) 씨(사진 3), 타이완 위생병원 전임 원장 쑤주후이(蘇主惠) 여사(사진 4), 입법원 교육문





화위원회 주임비서이자 유네스코(UNESCO) 국제도서관연맹(IFLA) 상임위원회 위원 구민(顧敏) 씨(사진 5), 타 이완동물복지환경보호협회 이사장 류향란(劉香蘭) 여사(사진 6), 조류·생태 화가 레이지런(賴吉仁) 씨(사진 7), 포모사 야생조류학회 사무총장 위웨이다오(余維道) 씨(사진 8), 라이온스클럽 『스핑크스 잡지(巨獅雜誌)』 편집장 정위성(鄭滄生) 씨(사진 9), 대자비생명보호장려센터(大悲護生推廣中心)의 설립자 천뤼전(陳瑞珍) 여사(사진 10), 무자(木柵) 직업고등학교 영어교사이자 개 보호가로 유명한 자홍추(賈鴻秋) 양(사진 11), 그리고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신간 발표회는 흥겹게 진행되었다. 이날 가장 놀라웠던 일은 당시 파리에서 유럽 동수들과 선행사를 하고 계시던 칭하이 무상사께서 특별히 신간 발표회 참석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진행하신 일이었다.

신간 발표회는 새 깃털 복장을 한 천진하고 사랑스런 어린 동수들의 유쾌한 새 춤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서 칭하이 무상사와의 화상회의가 열렸다. 스승님이 화면에 나타나시자 청중석에서 자발적인 환호와 박수가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랑하는 스승님은 이 책을 출간하신 주요 목적을 비롯해 여러 귀중한 이념을 함께 나누셨다. 그후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시간 동안 스승님은 당신이 새를 어떻게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하는지 알려 주시는 한편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그전에 먼저 그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춰야 하며 사랑으로써 애완동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스승님은 또한 새들과의 친밀한 생활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한편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리하고 지적인 23마리의 새가 매일 즐기는 식사 만드는 법도 알려 주셨다. 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야생 동물들에 관해 쓰신 또 다른 신간 『고귀한 야생』이 곧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행사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박수 갈채를 보냈다.

많은 방문객들과 기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스승님과 대화를 나누며 스승님의 신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신간 발표회에 참석하고자 일부러 독일에서 온 유명한 영화감독인 헬무트 니취케 씨는 스승님의 신간에서 받은 감명과 이로움에 대해 말하며, 모두에게 숭고한 자비심을 발휘해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세상을 좀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자고 격려했다.

경험이 풍부한 출판업자인 쉰시즈 여사는 책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메시지가 독자들을 감미로운 삶의 연못에 잠기게 해준다고 극찬했다. 그녀는 이 책이 자신에게 크나큰 기쁨과 축복된 느낌을 가져다주었다고 하면서 모든 이들이 읽어 봐야 할 보기 드문 훌륭한 책이라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스클럽 300A1 지구장 장뤼장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칭하이 무상사처럼 위대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중생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린 신간 발표회 참석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 중인 칭하이 무상사.



있을 것입니다. 무상사님의 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럼 세계 평화가 아주 빨리 오겠지요.” 『스핑크스 잡지』의 편집장 정위성 씨는 인간은 서로 언어로 의사소통하지만 개나 새와 같은 다른 동물과 소통하려면 텔레파시를 이용해야 하며 그들을 키우려면 평생 돌봐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와 동물들의 생활 공간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스승님이 새와 소통하는 얘기를 읽고 난 뒤 스승님의 사랑에 크게 탄복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모든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에게 전해줘야겠다고 말했다.

류상란 이사장은 유기 동물들을 돌보는 문제에 관해 스승님께 질문했다. 스승님의 답변을 들은 뒤 그녀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자신들의 동물 보호소에 관한 무료 광고를 방송해 전세계에 동물 사랑을 상기시켜 준 데 대해 보호소에 있는 300여 마리 동물들을 대신해 감사를 표했다. 이에 스승님은 동물들이 보다 나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 보호소에 미화 1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하셨다.

같은 날, 킹스턴서점에는 신간을 사려는 4, 5백 명가량의 독자들이 양쪽 정문으로 물 밀듯이 몰려왔다. 심지어는 새벽 6시부터 밖에서 줄을 섰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해 달라는 칭하이 무상사의 호소를 성원하는 것이었다. 많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신간이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리고 ‘베스트셀러 1위’가 되길 기원한다.

은 주요 매체들도 며칠 동안 연이어 이번 신간 발표회와 스승님의 신간에 대해 보도했다. ‘CtiTV(中天)’, ‘타이완TV(台視)’, ‘차이나TV(中視)’, ‘SETTV(三立)’, ‘TVBS’, ‘GTV(八大)’, ‘ETTV’, ‘시대TV’ 등의 TV 방송국이 앞다투어 이번 신간 출간 소식을 방송했고, 『연합보(聯合報)』, 『연합만보(聯合晚報)』, 『세계논단보(世界論壇報)』, 『대만신생보(台灣新生報)』, 『조달청관보(政府採購公報)』, 『MRT 생활뉴스(生活捷運報)』, 『유페이퍼(UPaper, 台北捷運報)』 등의 주요 신문도 대대적으로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생명 존중, 동물 사랑’의 메시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 매체에 큰 감사를 보낸다. 이는 신의 사랑 안에서 이 행성의 모든 존재들을 융합시키는 첫 걸음이며 지구의 평화를 위해 성큼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끝으로 신간 출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회자가 스승님께 ‘스크린’을 통해 채식 케이크를 자르고 손님들과 같이 건배해 주시길 청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신간이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되기를 기원했다. 그러자 스승님도 모든 독자들이 책을 읽고 행복해지고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축복하셨다! 유쾌한 환호 속에서 신간 발표회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대중들의 호응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이 킹스턴서점(金石堂), 북스닷컴(博客來),



신간 첫 판매장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

청핀(誠品)서점 등 3개 주요 대형 체인 서점에 선보인 지 사흘도 되기 전에 킹스틴서점에서는 ‘동물 분야’에서 판매 1위, ‘자연과학 분야’에서 판매 4위를 기록했으며, 북스닷컴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각계각층의 호평을 받으며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포모사의 많은 주요 서점에서 이미 품절되어 추가 인쇄 작업에 들어갔다. 세상에 이처럼 귀중한 선물을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모두들 이 책을 읽어 보길 바란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관련 전문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loveocean.org/birds/newbook.htm> (중국어)

최신 매체 보도를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loveocean.org/> (중국어)

그 외 관련 블로그:  
<http://tw.myblog.yahoo.com/animals-caretaker> (중국어)  
<http://www.wretch.cc:80/blog/birdies> (중국어)  
<http://www.wretch.cc/blog/MyAmigoBirds> (중국어)

책 소개 및 온라인 주문 사이트:  
[http://www.thecelestialshop.com/shop/product\\_info.php?products\\_id=543](http://www.thecelestialshop.com/shop/product_info.php?products_id=543)  
[http://www.edenrules.com/en/product\\_2.php?prodnum=BY-E-03](http://www.edenrules.com/en/product_2.php?prodnum=BY-E-03)  
<http://www.smchbooks.com/new-eng/book-e/index.htm>



포모사의 많은 주요 신문들이 긍정적인 기사로 스승님의 신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다.

##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 포모사 각지를 계속해서 빛내다

포모사 뉴스그룹 종합 보도 (원문 중국어)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신간 발표회가 8월 24일 타이베이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후 포모사 각 센터들은 신간 출간 소식을 계속해서 전국 곳곳에 퍼뜨렸다. 이렇게 해서 ‘생명 존중, 동물 사랑’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 타이베이

## ‘2007 동물들의 외침’ 공익야유회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다

타이베이 센터는 9월 8일과 9일, 중화민국동물보호협회(中華民國保護動物協會)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개최한 대규모 공익 선도 야유회에 참가해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의 이념과 메시지를 소개했다. 동수들이 준비한 다채롭고 재미있는 여러 활동은 손님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주최측에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했다.

우리가 준비한 활동에는 강아지 패션쇼도 있었다. 유기견이었다가 지금은 입양된 200마리가 넘는 개들이 주인과 함께 이 패션쇼에 참가했다. 그중 동수들에게 입양된 건강하고 활기 찬 모습의 채식 강아지들은 매체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유기견을 입양한 수백 명의 개 주인들은 자비로운 지지자들과 함께 행사장에서 동물을 위해 강력히 호소했다. “애완견을 사는 대신 입양을 하세요. 죽이지 말고 중성화수술을 해주세요!” 타이베이 시 동물 위생 검사소의 옌이펑(嚴一峰) 소장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 행사장을 방문해 스승님이 동물들과 생활하시는 모습에 관해 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계 인사로서 진보적인 사고와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스승님이 사랑으로 동물을 다루는 방식은 모든 존재를 하나로 대하는 대자비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정말 존경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스승님이 키우시는 새와 강아지 친구들은 전생부터 스승님과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생에서 그처럼 큰 복을 얻어 깨달은 스승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는 것이겠지요…….” 그의 말은 청중들의 큰 공감을 샀다. 모두들 미소 지으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애완동물 식품을 판매하는 ‘베니핏 국제유한공사(班尼菲國際有限公司)’는 완전 채식 사료(채소와 과일로 만든 것)를 동물 보호소에 기부했다. 이 회사의 천위리(陳雨利) 사장은 특별히 우리 부스를 방문 해 스승님과 우리 협회에서 채식 생활



식과 동물 사랑에 관한 홍보를 위해 펼치고 있는 갖가지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 스승님의 자비에 감동받은 그는 ‘대안적인 삶’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관한 홍보 자료를 배포할 때 함께 나눠 줄 개와 고양이를 위한 시식용 채식 사료를 천 봉지 정도 제공했다. 천 사장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자원 봉사 활동과, 모두가 채식 생활 방식과 환경 보호, 만물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서 일한다는 점을 알고 무척 기뻐했다.

## 장화

### 창작 미술 여름 캠프로 이어진 열기

8월 26일, 장화 센터는 ‘96 위안린(員林)·푸신(埔心) 지역 사회 창작 미술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시기 적절하게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의 열기와 논의를 이어나가는 행사였다.

개회 프로그램은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영감의 근원으로 삼은 ‘창작 그림 디자인’이었다. 이어서 채식 바비큐 요리법 강좌와 바비큐 파티, 모닥불 저녁 파티가 이어졌다. 마지막 행사인 똑똑한 개들의 공연은 아이들의 마음에 동물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사랑을 일깨워 주었다. 이 밖에 우리는 의사인 동수를 초청해 건강 채식 세미나를 여는 한편 대학에서 지도 및 상담학을 가르치는 사저의 자녀 교육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틀어 가정 교육의 중요성과 요령을 설명하기도 했다.



## 화롄

### 동물 보호 단체와 합심해 고귀한 이념을 홍보하다

9월 1일, 화롄 동수들은 『갱생일보(更生日報)』 60주년 기념 야유회에 참가해 스승님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그리고 홍보 포스터를 화롄 현 동물보호협회에 기증했다. 협회 이사장 펑사오민(馮少敏) 여사는 기뻐하며 즉시 포스터를 붙이고 책을 자기네 부스에 전시해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동수들에게서 동물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펑 이사장은 깊은 감동을 받고선 스승님의 자비로우신 면면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승님의 책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덧붙이며 사실 자신 또한 이와 유사한 책을 집필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9월 2일, 동수들이 큰 상자 두 개분의 개 사료와 5천 NT를 화롄 현 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하자 펑 이사장은 연신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현재 백여 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하면서 개들에게 깨끗하고 널찍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녀가 키우는 개들이 전부 채식을 한다는 점이 감동적이었다.

## 자이와 이란

### 라디오 신간 광고

자이(嘉義)와 윈린(雲林)의 동수들은 스승님의 신간을 친지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곳곳에 포스터도 붙였다. 이 밖에 자이·윈린·이란의 시민들에게 영적 지혜로 충만한 새 친구들의 고귀한 메시지와 그들이 입양된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기 위해 ‘자이 BCC 뉴스 라디오 방송국(BCC News Radio Station)’과 ‘UFO 북이란 산업 라디오 방송국(North Ilan Industrial UFO Radio Station)’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다.

이 귀중하고 보기 드문 책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도록 협조해 준 BCC 뉴스 라디오 방송국과 UFO 라디오 방송국의 아낌없는 후원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





## 타이난

### 예술 작품 전시회에서 신간의 메시지를 전하다

9월 1일부터 16일까지, 타이난 동수들은 타이난 사회교육관에서 스승님의 예술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행사장에서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도 전시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아이들이 이 책을 무척 좋아했는데, 아름다운 삽화에 마음을 빼앗겨 손에서 책을 내려놓을 줄 몰랐다. 한 노신사는 감동을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님은 정말 굉장한 분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책은 정말 시대의 걸작입니다!” 또 다른 방문객 역시 감격에 차서, 이 책을 읽고 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었으며 동물은 진정 신이 인류에게 보내신 최고의 친구라고 말했다.



인류의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일반 대중들도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이 책에 담긴 고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

### 신간 독자들에게 보내는 스승님의 축복

2007. 8. 24. 스승님과 포모사 독자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중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의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아주 행복하게 느끼고 그로 인해 온갖 행운이 따르길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행운도 같이 오기 때문이지요. 이 책을 쓰기 전에 새들한테 이런 축복을 주어도 좋겠냐고 물었더니(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들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행복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더군요. 그러니 이 책은 모든 이들에게 같은 행복감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대중 박수) 우리가 행복할 때 운도 저절로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



## 칭하이 무상사의 신간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에 관한 사색



영화감독 헬무트 니취케/ 독일 베를린 (원문 독일어)

**칭**하이 무상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일과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안다면, 도대체 책을 집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 궁금해질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진정한 실체를 안다면 이런 의문은 사그라지고 어린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이 자그마한 인물이 뿜어내는 창작 에너지의 최신 결과물, 즉 또 다른 작은 존재들에 대한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탐구하게 된다.

이 다채로운 책은 문장 사이사이로 많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저자와 그녀의 애완 새들 간의 사랑이다. 하지만 곧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음이 명백해진다. 이 책의 새들은 의인화된 방식으로,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고 또 각자 슬프고 험난한 삶을 겪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소개된다. 그들 가운데 많은 새들이 애완동물 가게나 동물 보호소에 있다가 스승님에게 왔고, 스승님의 애정 어린 보살핌 속에 훌륭하게 성장했다.

책 전반에 걸쳐 지은이는 계속해서 새들의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찬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우리 조류 친구들이 지닌 진짜 보물에 대해 각자의 지혜로 보다 깊이 인식해 보도록 부드럽게 권고한다. 일부 사진은 스승님이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 준다. 새들의 대답은 다소 짧게 전해지는데, 아마도 아주 적은 부분만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이 짤막한 대답은 의도된 것일까? 그 새들이 그 밖에 어떤 말을 했을지, 어떻게 해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 것인지 독자들이 생각해 보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아닐까? 아니면 이런 질문들이 ‘엄마(새들이 저자를 부르는 호칭)’에게 새들과 함

깨 그 유명하고도 활달한 웃음을 터트리게 하려나?

어쨌든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옮겨질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놀라운 존재들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고 싶어진다. 한 가지 조건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들의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과 소통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이다. 선입견이나 어리석은 우월감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초심리학 연구에서는 동물이 사람의 오라를 읽는 능력이 있으며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동물들은 인간의 사랑에 애정으로 보답한다. 민감한 일부 동물 애호가들은 종종 신께서 동물들의 눈을 통해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한다.

스승님은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다. 스승님은 신이 동물들을 내적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의사소통하실 수도 있다. 저자와 새들과의 대화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다른 뭔가가 존재한다. 그것은 완전히 이성을 초월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도달할 방법이 있을까?

명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스승님은 늘 단 하나의 주제, 스승님과 애완동물들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돌아오신다. 나는 스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조건적인 신의 사랑만이 다른 존재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임을 심어 주려 하신다고 믿는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 숭고한 사랑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내게 있어서는 이 점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듯하다. 그래서 깃털을 가진 평화의 전사 ‘아나칸(Anakhan)’ 이야기에 그토록 감동받았던 것이다.

“좋아요, 하지만 이 새들 이야기가 좀 과장된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친애하는 그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요청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한때는 아시시(Assisi)의 성 프란체스코에게 가르침을 들었던 새들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말이다!



이 책의 저자인 스승님을 사랑한다.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사랑을 보내며 즐거움이 가득한 독서가 되기를 바란다.

신의 축복과 함께

2007년 7월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헬무트 니취케 ☀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받고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동물 세계에 대한 이야기

2007. 8. 24. 스승님과 포모사 독자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중국어)

**질문:** 스승님,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쓰신 주요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우선은, 인연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아름다운 동물 친구들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새들이고, 그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혼도 더없이 아름답지요. 또한 매우 총명하고 감정도 깊습니다.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들 그들의 진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쩌면 이들 작은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중생들을 좀더 많이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이 책이 독자와 일반 대중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스승님:** 인류가 동물의 세계를 보다 많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을 반려로서 대하고 좀더 잘 보살펴 주고 서로 이해해 보길 바랍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물들이 어리석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들은 매우 총명하고 똑똑합니다. ☀

## 동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법

2007. 8. 24. 스승님과 포모사 독자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중국어)

**기자:** 스승님, 안녕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동물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스승님:**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하면 됩니다. 사랑과 우정으로 대하며 서로를 이해한다면, 그들은 불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새들에게 “행복하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예! 아주 행복해요!”라고 대답합니다. (대중 웃음) 그들 모두 아주 행복해합니다. ☀





## 채식 식당차 --

# 이동식 점포를 이용해 좋은 소식 나누기

헬렌 홀로이드 사저/ 영국 서리 센터 (원문 영어)

몇 년간 이동 식당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음식의 유행 변화를 지켜봐 왔지만, 올 여름 채식의 대중화처럼 급속도로 성장하는 예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2년 전에 좀더 명상을 많이 하기 위해 원래 하던 사업을 정리했는데, 1년이 지난 뒤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스승님의 안배였다고 확신한다. 전에 했던 일로 도로 돌아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엔 목적이 달랐다. 이 사업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건 맞았지만, 경제적인 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채식을 알릴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엔 구속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일은 여전히 고됐지만, 이 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기에 이런 멋진 기회를 갖게 된 것이 큰 축복이란 걸 알았다. 사업을 '재개'하면서 나는 관음 깃발 그림이 들어간 현수막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트레일러 꼭대기에 걸어 두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손님이 가져갈 수 있게 했다.

다시 장사를 시작한 후로는 주변의 대부분 가게들에 손님이 없을 때도 우리 식당 차만큼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사 갈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 또한 원래는 채식을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음식을 시식하러 왔다. 우리는 사람들과 의식을 고양시키는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안적인 삶'의 개념 쪽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트레일러로 불러 인사를 건넸는데, 그들은 우리가 판매하는 게 채식이라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가 정중하게 권하면 대부분 채식 음식을 시식해 본다. 손님 중 한 명도 실망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나중에 다시 음식을 사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동 식당의 채식 음식에 대한 수요는 놀라울 정도로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전에도 축제 기간에는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긴 했지만 지금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에 이롭고 보다 자비로운 생활 방식과 식생활을 추구하고 논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은총으로 이제 우리는 황금시대로 들어서는 놀라운 때를 맞이하고 있다. 스승님께 크나큰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채식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

## 필자 주:

우리 모두 채식을 좀더 보편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스승님의 당부를 받들고자 채식 음식 판매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작은 이동 식당 속에서 그 모든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 주고 싶다. 약 5천 파운드(1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누구든 비슷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축제 장소에서라면 다소 비용이 들겠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는 마음대로 음식을 팔 수 있게 해준다. 시장, 도서 박람회, 옥외 쇼핑 센터 주차장, 정류소 등이 그렇고, 또 주변에 사무실이 있으면 식당차에서 음식을 만들어 점심 식사로 배달할 수도 있다. 영국에선 여름 내내 소규모 야외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데, 다른 나라들도 분명 그럴 것이다.

선명한 광고 디자인으로 차량을 다채롭고 산뜻하며 시선을 끌도록 꾸미는 게 중요하다. 차량을 구입해서 꾸민 다음에는 지역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당국에서 여러분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검사하러 나올 것이다. 이런 절차와 다른 소소한 일들을 마치면 밖에 나가 우리 동물 친구들에게 고통을 야기시키는 일 없이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스승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수없이 많은 감사를 드린다. ☀





# 재미있는 영성 고양이 수업: 약물중독치료센터 원생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다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포모사 타이베이 회원들은 황금시대 3년(2006년) 7월부터 신디엔 약물중독치료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편법 명상 시간을 갖고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 회화 수업을 진행해 왔다. 이 활동은 영적인 힘으로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도와주었으며, 치료센터 측과 원생들 모두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치료센터 측에서 우리에게 매주 두 차례씩 채식 강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해 오기까지 했다.

치료센터의 심리상담가 리징이(李靜宜)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원생들이 아주 집중해서 수업에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처럼 재미있고 영성이 풍부한 과정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료센터의 많은 원생들이 스승님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아 채식을 시작했으며 입문도 준비하고 있다.

신의 사랑이 사회 주변인이었던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신 게 분명하다. 오랫동안 웃음이 사라졌던 그들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졌다. 또한 그들은 명상도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이다. 수업 중 우리는 한 원생이 벌써 7일이나 완전 채식을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명상을 했는데, 종종 여러 색깔의 빛과 혜성같이 반짝이는 점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스승님의 가르침은 정말 이치에 맞아요. 그 말씀은 많이 들을수록 우리에게 정말 이롭습니다!”라고 했다.

치료센터 흥법 활동에 참여했던 동수들 모두 크나큰 이로움과 감명을 받았다. 한 사저는 이렇게 말했다. “한번은 영어 강좌를 좀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샌드위치와 채식 종즈 만들기를 소재로 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평소 냉담하고 무관심했던 학생들조차 그날은 아주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습니다. 특히 샌드위치와 종즈 만들기 실습 시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원생들도 그 소리에 이끌려 무슨 일인가 싶어 보러 오기도 했어요. 치료센터 직원들도 자주 들러 구경하곤 했지요. 마치 왁자지껄하고 유쾌한 파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채식 샌드위치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선생님! 저도 채식하고 싶어요!’, ‘채식 종즈 하나 더 주세요.’ 원생들의 열렬한 반응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이었어요. 특히 수업이 끝난 뒤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때 보이던 진심이 담긴 반짝이는 눈망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사형은 또 이렇게 말했다. “너무나 행복하게 웃어서 빛이 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난 봤습니다. 매주마다 신디엔 약물중독치료센터에서 보고 있지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그곳에 갈



때면 우리는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신디엔 약물중독치료센터의 오랜 친구들에게 가져다줍니다. 원생들의 빛나는 눈에 담긴 진실된 감사의 눈빛은 모든 것이 신의 경이로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과정이 끝나기 전 원생들이 동수들에게 준 선물-손으로 정교하게 그린 불상과 반야심경 필사본.

## 영어 회화반 원생들의 감사 편지

(원문 중국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특별히 시간을 내어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저희 치료센터를 찾아오셔서 많은 인내로써 저희를 가르쳐 주신 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님의 은총 덕분에 저희는 여러분, 덕망 있는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반 학생들이 전생에서 가져온 복인 듯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한 번도 우리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던 열등감이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생 여정 중에 이곳에서 여러분같이 덕 있는 선생님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실로 드물고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강좌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헤어지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향연은 없는 법이지요. 인연이 있다면 분명 다시 만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렇겠지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수행의 삶에서 하루빨리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영어반 학생 일동 드림





## 영어 회화반 원생들의 또 다른 감사 편지

(원문 영어, 중국어)

영어 선생님들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수업을 재미있고 유용하고 즐겁게 만들고자 많은 정성을 쏟고 고민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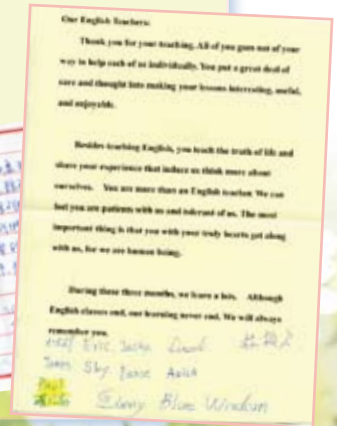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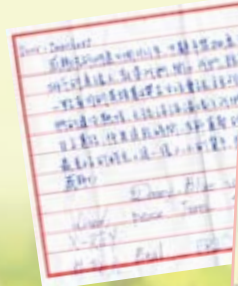
여러분은 영어뿐 아니라 삶의 진리도 가르쳐 주셨고 자신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저희에게 스스로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어 선생님 그 이상이십니다. 여러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를 대하셨고 저희에게 너그러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저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영어 수업은 끝났지만 우리의 배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반 전체 학생들의 서명:

**엑스레이, 에릭, 재키, 린네츠, 제임스, 스카이, 피스, 아킬라, 폴, 대니, 블루, 위즈덤, 린보전**



## 스승님께서 재소자 강 씨에게 사랑과 격려를 보내시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한**국의 한 재소자가 쓴 매우 감동적인 편지가 뉴스잡지 187호의 '그들의 영혼은 자유롭다'에 실린 바 있다. 그의 신실한 갈망을 아신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한국 동수들에게 재소자 강 씨한테 사랑의 선물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스승님의 세심한 배려에 따라 안동 센터 소속 협회 회원들이 그를 방문해 침대보와 티셔츠, 속옷, 채식 음식, 홍삼캔디, 두유를 전달했다. 그는 스승님께서 자신의 편지를 읽고 이런 사랑과 관심을 보내셨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으며, 스승님의 자비로움에 깊이 감사드렸다.

그는 이미 스승님의 책을 모두 읽었으며 그 책들이 지혜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8년 6개월을 복역했으며, 앞으로 1년 6개월 후면 석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는 하루속히 입문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가 삶의 매 순간마다 신의 은총과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스**승님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오셨다. 어딘가에 재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스승님은 즉시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시고 재해 지역에 구호 팀을 파견해 도우신다. 이 같은 구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다. 스승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축복, 도움으로 세계적인 재난이 최소화되었음은 분명하다.

스승님께서 세계 각지의 정부와 단체, 구호 대원들의 사심 없는 노력을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

“이재민들에게 관심과 구호품을 가져다준 모든 국제적인 원조에 감사를 보냅니다. 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시간을 내어 좋지 않은 도로 여건과 여러 악조건을 뚫고 멀리까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원조를 제공해 준 모든 구호 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과 고귀한 희생이 하늘의 충만한 축복으로 보답받길 기원합니다.”

## 인도

# 스승님의 사랑으로 인도 수재민들의 마음이 훈훈해진다

싱가포르 뉴스그룹 정리 보도 (원문 영어)

**여**름 계절풍이 몰고 온 호우로 인도 북부에 홍수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었으며, 의약품은 물론이고 생필품, 대피소가 시급한 처지에 놓였다.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 은총을 안고 싱가포르의 두 구호 팀이 2007년 8월 초 인도로 향해 비하르(Bihar) 주와 아삼(Assam) 주에서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아삼 지역으로 간 구호 팀은 며칠간의 신중한 조사를 통해 수재민들이 정부의 보살핌을 잘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비하르 지역 구호 팀은 도움이 절실한 많은 주민들에게 시기 적절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스승님이 주신 미화 8만 달러의 구호금으로 비닐시트, 쌀, 비스킷, 설탕, 밀가루 등의 물품을 사서 수재민들에게 제공했다. 주민들은 무척 고마워하였으며 스승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했다. 그래서 동수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에게 스승님을 소개하고 견본책자와 스승님 사진, 우리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했다.



## 시타마리 지역

시타마리 구(Sitamarhi District) 리가(Riga) 지역은 3천 가구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 많은 주민들이 형편이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피난처와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동수들은 피해가 심하고 도움이 절실한 250 가구를 찾아내 이재민들이 요청한 일용품을 즉시 구입했다. 여러 모로 도움을 많이 준 통역인 주드 피터스 씨(Mr. Jude Peters)와 그의 동료 카쉬렌드라 씨(Mr. Kaushlendra), 그리고 도매시장의 친절한 상인들의 도움으로 구호품 250꾸러미가 짧은 시간 내에 준비되었다. 구호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종종 호기심을 가진 마을 주민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한 젊은이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웹사이트에 들어가 프로그램을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타마리 구 리가 지역에서 물품을 배포하는 모습.

## 다르방가 지역

춘장 나젠드라 박사(Dr. C.C. Nagendra)의 말에 따르면, 다르방가 구(Darbhanga District)의 19개 마을이 이번 홍수로 큰 재해를 입었고, 5천 가구가 음식, 비닐시트, 유아 분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동수들은 굳은 결의와 기도로 요청받은 물품 5천 꾸러미를 때맞춰 준비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동수들을 아주 기쁘게 맞았다.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 이재민들을 염려해서 자비로운 스승님께서 구호품과 식량을 보내신 것이라고 설명하자 주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주민들은 직접 자기네 마을에 와서 온정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만수무강하세요, 칭하이 무상사님.” 하면서 스승님에 대한 찬양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구호품을 전부 내릴 때까지 노래는 계속되었다. 나젠드라 박사도 연설 중에 스승님과 우리 단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동수들이 다음 지역으로 떠나려 하자 주민들은 길 옆에 나란히 서서 다시 한 번 스승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나젠드라 박사와 그의 도우미들은 그후 이를 동안 모든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배포해 주었다.



구호품을 내리는 동안 스승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마을 주민들.

## 베구사라이 구와 카가리아 구

구호 팀은 베구사라이 구(Begusarai District)에서 스승님의 사진이 붙은 천막 6천 개를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제공했다. 이곳의 지역개발담당관 칼루무딘 씨(Mr. Kalumudin)는 우리의 도움에 매우 고마워하며 스승님께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카가리아 구(Khagaria District)는 대략 150개 마을이 물에 잠기고 2만 가구 정도가 댐을 따라 그 주변에 머물고 있었다. 악천후 속에서 구호 팀은 통역인 주드 피터스 씨, 변호사 싱 씨(Mr. Singh), 지역책임자 수레쉬 야다브 씨(Mr. Suresh Yadav) 등의 도움을 받아 보트를 타고 댐 주변 현황을 조사했다. 그후 이틀에 걸쳐 비닐시트 5천

장과 쌀과 설탕이 포함된 식품 680꾸러미를 구입하여 포장했다. 직원들은 동수들의 신속한 움직임과 협동 정신을 보고선 이에 자극을 받아 그들도 작업 속도를 높였다. 공장 사장까지 나서서 기꺼이 도왔다. 쌀과 비닐시트 공장 사장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한 트럭을 가득 채운 구호품이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고, 주민들은 감사히 물품을 받았다. 비닐시트 회사 사장은 몸소 공항까지 나와 우리 동수들을 배웅해 주었다!



쌀과 설탕 포대를 내리는 모습.



스승님의 사진을 든 마을 주민들.



파트나 공원에서 동수들과 기사들, 통역인, 비닐시트 공급자, 도우미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홍수 이재민 구호 임무를 마친 구호 팀은 8월 21일 인도를 출발해 무사히 싱가포르로 돌아왔다. 모두들 이번 일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느꼈다. 특히 구호 활동에 처음 참가한 동수들은 이번 여행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얘기했다. 일을 효율적으로 마치는 데는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큰 몫을 차지했는데, 다들 동수들의 사랑 어린 관심과 친절할 도움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들 인도 국민들에게 충만한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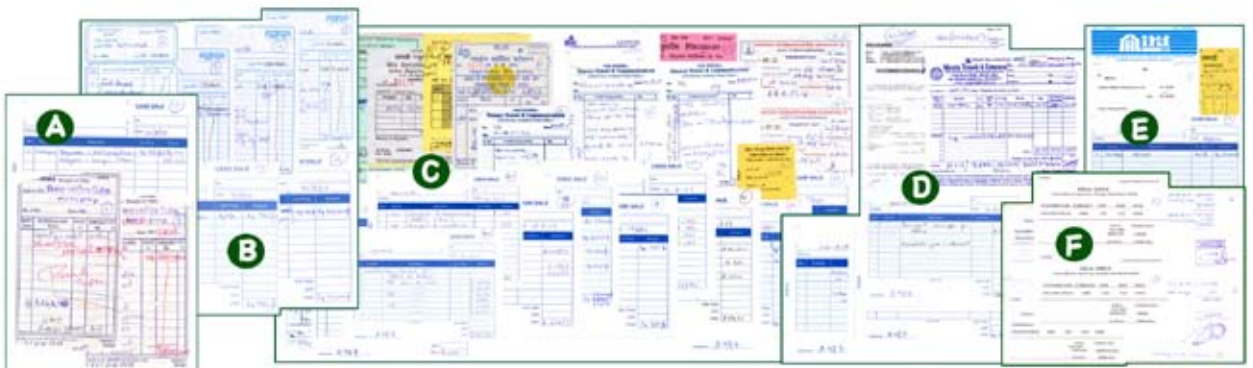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받고 기뻐하는 호텔 직원들.

## 칭하이 무상사의 인도 비하르 지역 수재민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인도화 루피)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비닐시트	1,366,750	A
식품(쌀, 콩가루, 밀가루, 소금, 비스킷, 식용유, 콩, 분유 등)	1,547,060	B
운송비(차량 임대료, 연료비)	192,512	C
통역비, 노임	31,228	D
스티커, 현수막	41,600	E
잡비	4,200	F
총액	3,183,350 (미화 80,000달러)	





## 어울락

# 어울락(베트남) 재난 구호 활동

어울락 뉴스그룹 (원문 어울락어)

**최** 근 제2호 태풍으로 어울락(베트남)의 북부, 중부, 서부 고원지대, 남부 일부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어울락 회원들은 스승님께서 기부하신 미화 2만 달러와 국내외 동수들의 기부금 미화 1만여 달러로 구호기금을 마련한 뒤 8월 중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들을 시급히 방문했다.

어울락 북부의 우리 협회 구호 팀은 하띤(Ha Tinh) 성과 꽝빈(Quang Binh) 성 두 지역으로 갔다. 꽝빈 성에서는 뚜옌호아(Tuyen Hoa) 구의 짜우호아(Chau Hoa)·띠옌호아(Tien Hoa)·дук호아(Duc Hoa)·탁호아(Thach Hoa) 마을과 민호아(Minh Hoa) 구의 호아타인(Hoa Thanh) 마을을 방문했다. 동수들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사랑하는 가족과 집, 재산을 잃고 고통 받는 가정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한편 450명의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나눠 주었다. 이 밖에 민호아 구 호아타인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 측이 책걸상 5세트와 천장 선풍기 16대를 구입해 주었으며 3명의 장애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하띤 성에서는 후옹케(Huong Khe) 구의 11개 마을과 부꽝(Vu Quang) 구의 둑린(Duc Linh), 둑기엥(Duc Giang) 등 2개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호품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꽝빈 성의 재해를 입은 민가.



닥락에서 쌀을 나눠 준다.



구호품과 스승님의 사진을 하띤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다.



구호품, 스승님의 사진, '대안적인 삶' 전단을 꽝빈 성 민호아 구 호아타인 마을의 어린이 450명에게 나눠 준다.

중부 지역의 구호 팀은 닥락(Dak Lak) 성 끄롱팍(Krong Pac) 구의 에이이엥(Ea Yieng) 마을과 에아쑈(Ea Sup) 구의 에아롭(Ea Lop) 마을, 그리고 서부 고원지대를 방문해 집을 잃거나 태풍으로 곤경에 처한 405가구에 쌀과 현금을 나눠 주었다. 또 '비년(Vi Nhan) 장애아동학교'와 시각장애인 가정 12가구에도 도움을 주었다. 협회의 사랑에 감동한 몇몇 가족과 기관에서 감사 편지를 보내왔으며, 닥락 성 적십자사는 우리 단체를 '황금 마음'을 가진 단체로 인정했다.

우리 협회는 남부 림동(Lam Dong) 성 캣띠옌(Cat Tien) 구 꽝응아이(Quang Ngai) 마을에서 4개 부락 이재민들에게 라면, 설탕, 식용유, 조미료, 과자, 사탕, 약용 오일, 위로금 등이 포함된 구호품 250꾸리미를 전달했다.

동수들은 구호 활동을 하는 한편 '대안적인 삶' 전단도 배포했다. 꽝빈 성 동호이(Dong Hoi)에 위



‘대안적인 삶’ 전단을 열심히 읽고 있는 꽁빈 성 호아타인 마을의 어린이들.



노천시장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하다.



그론폍 구 적십자사에서 수여한 ‘황금 마음’ 표창장.

치한 베트남·쿠바 친선 병원(Vietnamese-Cuban Friendship Hospital), 꽁찌(Quang Tri) 성의 기오린(Gio Linh) 시장과 동하(Dong Ha) 시장, 후에(Hue) 안꾸(An Cuu) 지역 동바(Dong Ba) 시장에서는 1만장이 넘는 전단이 배포되었다.

시기 적절한 스승님의 도움에 감명을 받은 각급 지방 정부와 이재민들은 사랑하는 스승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건강에 이롭고 사랑이 가득한 ‘대안적인 삶’의 생활 방식을 따르기를 바란다.☀

## 제2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울락 이재민 구호 활동에 대한 감사 편지

(원문 어울락어)

베트남 적십자사  
닥락 지부  
황금 마음 표창장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구천구십만 동(미화 5,600달러) 상당의 구호 물자와 기금을 제공해 닥락 성의 태풍 2호 이재민들을 도왔습니다.  
협회의 황금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도의회 상임 의장  
도안 안 타이 박사(Dr. Doan Anh Tai)

황금 마음 인도주의 기록부  
제5호, 2007년 8월 17일





## 비년 장애아동양육·훈련원

저는 장애아동(청각·시각 장애아 및 경미한 지체장애아 등 153명의 아이들)의 양육과 훈련을 맡고 있는 응우옌 티 쑤언(Nguyen Thi Xuan) 수녀입니다.

쌀 1톤(1,000kg)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신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존경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수녀단과 선생님, 직원, 장애아동을 대표해서 저희 시설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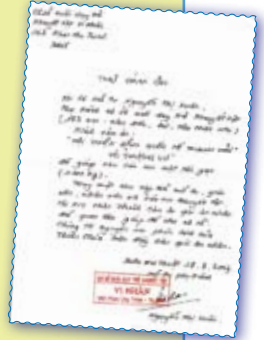
신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 8월 18일

부온마투옿(Buon Ma Thuot)에서

책임 수녀

응우옌 티 쑤언 드림



##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어울락 수재민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베트남화 동)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식품(시리얼·라면·떡·우유·통조림 음식·비스킷 등)	31,066,500	A1
수재민, 지방 정부, 어울락 적십자사에 제공한 담요, 지원금, 기타 식품	465,676,000	A2
기타 구호품 (장갑·수건·세제·비누)	1,000,000	A3
운송비 (차량 임대비, 연료비 등)	13,550,000	A4
잡비 (사진 인화비, 필름 등)	110,000	
총계	511,402,500동 (미화 31,665.79달러)	



## 페루

# 페루의 지진 이재민들에게 성모의 사랑을 전하다

미국 플로리다와 페루 구호 팀 종합 보도 (원문 영어, 스페인어)

2007년 8월 15일 수요일, 진도 7.9 규모의 지진이 페루를 강타했다. 이카(Ica) 지역과 피스코(Pisco) 시에서 시작된 이 지진으로 인해 피스코 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5백여 명이 실종되고 수천 명이 다쳤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잃었다. 친차(Chincha) 시와 카네테(Canete) 시를 비롯한 인근의 수많은 마을들은 외딴 산간지대에 있어서 외부의 접근이 어려웠다.

재난 소식을 접하신 스승님은 즉시 미화 5만 달러를 제공해 동수들이 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해주셨다. 미국에서 조직된 구호 팀 2개 조가 즉시 재난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구호 팀은 의사 몇 명과 간호사 한 명, 의료 보조원, 일반 동수들로 구성되었다. 스승님이 주신 지원금 외에 플로리다·조지아·오리건·애리조나·뉴욕·오하이오·뉴저지·펜실베이니아·휴스턴·시애틀 센터에서도 지원금을 보태 주었다.

페루에서 머물렀던 16일 동안, 우리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스코 시와 다른 여러 도시 및 지역을 방문했다. 지역마다 평균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고 이재민들에게 의약품과 식품, 텐트, 담요 등의 구호 물자를 나눠 주었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구호금도 전달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스승님의 사랑을 느꼈던 게 확실했다. 우리가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고선 우리를 ‘노란 조끼 사람들’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활동 중 우리 모두를 눈물짓게 한 감동적인 일들이 여럿 있었다. 한 여성은 쌍둥이 딸이 심하게 다친 상태였는데, 한 명은 지진으로 대퇴부가 골절됐고 다른 한 명은 족관절이 탈구되었다. 구호 팀의 의사는 그들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 어머니에게 즉시 딸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하면서 우리 구호 팀장에게 교통비와 병원비를 대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보고 감명을 받은 경찰들이 그 가족을 병원으로 이송해 주겠다고 자원해 나섰다.

또 한번은, 농사를 짓는 한 할머니가 우리가 와 준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아 손수 농사 지은 감자를 주고 싶어







했다. 우리가 감자 값을 내자 그녀는 곧바로 거절하며 자기 나라에 와서 이처럼 좋은 일을 해주니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마음이 순수한 그분의 고귀한 성품에 정말 감동했다. 그 할머니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가장 좋은 감자를 주면서 돈도 받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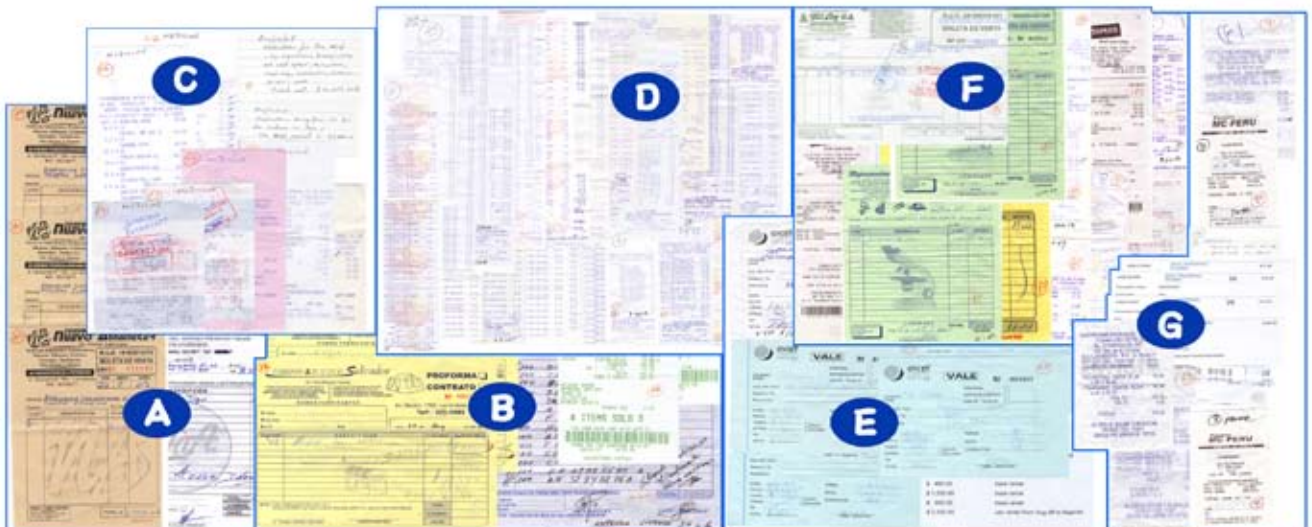
구호 활동 중에 우리는 많은 고귀한 성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전심전력을 다해 우리를 도와준 헌신적인 경찰들과 운전기사들, 이재민들을 찾게 도와준 산클레멘트(San Clemente) 시장 등이 그들이다. 또 자기네 기념관에 전시하고자 스승님의 사진을 요청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스승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기에 스승님을 좀더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스런 어머니의 사랑을 페루 지진 이재민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페루 지진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페루화 솔)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담요	24,050.00	A
텐트	24,234.34	B
의약품	46,783.27	C
식품 (물·빵·인스턴트 오토밀·통조림 식품·영아용 분유·두유·과자)	90,509.73	D
교통비 (자동차, 뱀, 트럭 임대료, 연료비)	23,870.28	E
전단, 견본책자, 사무용품	6,122.06	F
통신비, 전화비, 인터넷	2,777.47	G
가난한 이재민들에게 제공한 현금	1,287.40	
합계	페루화 219,634.55솔 미화 70,160.07달러	



## 부르키나파소

#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이 부르키나파소의 수재민들을 감동시키다

부르키나파소 뉴스그룹 (원문 프랑스어)



2007년 7월 28일 부르키나파소의 수도인 와가두두(Ouagadougou)에서 390km 정도 떨어진 바마(Bama) 마을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홍수는 가옥을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휩쓸어 갔다. 소식을 접한 자비로운 스승님께서는 미화 1만 달러를 관대히 기부하셨다.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동수들은 즉각 10명으로 이루어진 구호 팀을 결성하고 옷, 음식, 약품을 가득 실은 트럭을 타고 재해 지역으로 떠났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 센터의 빌딩 주인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우리 협회 회원들에게 차 두 대를 제공하여 필요한 구호품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 또 그 사람 덕분에 우리 구호 팀은 머무는 호텔에서 직접 요리를 할 수 있게 허락도 받았으며 그가 제공해 준 트럭으로 보보디올라소(Bobo Dioulasso) 시에서 바마까지 구호품을 실어 나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그는 우리 구호 활동을 도와줄 사람들을 일곱 명이나 보내주기까지 했다.

모든 수재민들이 그날 구호 물자를 받았다. 남은 물자는 다른 사회 복지 기관에 가져다주었다. 구호 물자를 배포하기 전, 몇몇 동수들이 칭하이 무상사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우리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

뒤 관음 명상을 소개하는 전단과 견본책자, 스승님의 사진,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고 수행에 관한 여러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는 일부 주민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놀랍고도 기쁘기 한량 없었다. 다른 이들도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눌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 칭하이 무상사의 부르키나파소 수재민 지원 지출 일람표

(단위: 프랑세파)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식품 (쌀, 옥수수, 콩, 식용유, 소금)	3,250,300	F1
의약품	250,132	F2
의류, 매트, 비누	499,400	F3
교통비 (버스비, 택시비, 통행료, 기사 사례금 등) 여행 경비 (노임, 숙박비, 식비)	412,125	F4
통신비 (비디오, 사진, 전화 등)	228,000	F5
인쇄비 (전단, 현수막)	70,000	F6
합계	4,709,957프랑세파 (미화 10,000달러)	



## 미국 중서부

## 수재민들에게 신의 사랑을

미국 중서부 뉴스그룹 종합 보도 (원문 영어)

2007년 8월 21일, 미국 중서부는 심한 폭풍우로 강물이 홍수 수위보다 2미터 넘게 불어나는 바람에 수천 명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이재민들을 매우 걱정하시며 미국 중서부 지역 동수들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움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셨다. 이에 중서부 지역 동수들로 구성된 구호 팀 3개 조가 재해 지역에 가서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제공하고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삶의 희망을 되찾게 해주었다.

## 미네소타

**미**네소타 주에서는 수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근방의 루시포드(Rushford)와 위노나(Winona)에 있는 보호 시설로 대피해야 했다. 최단시간 내에 수재민들과 보호 시설에 구호품을 나눠 주기 위해 동수들은 2007년 8월 23일, 큰 트럭을 빌리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서 물품을 포장했다. 이걸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부록 A 참조) 우리는 트럭이 보호 시설에 도착하기 전에 목욕 타월·비누·치약·칫솔·생수, ‘대안적인 삶’ 전단, 스승님의 견본책자가 포함된 200개의 큰 꾸러미를 만들었다. 보호 시설에서 일하는 자원 봉사자들은 우리 구호품을 받고 매우 감동했으며, 수재민들을 대표해서 이들 불우한 영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한 우리 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 위스콘신

**일**리노이 센터 동수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웃하고 있는 위스콘신 주 라신카운티(Racine County) 주민들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도움이 절실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8월 24일, 우리는 간식거리, 칫솔, 치약, 식수, 비누, 수건 등의 구호품을 구입한 뒤 다 함께 힘을 모아 300개의 구호품 꾸러미를 마련했다. (부록 B 참조) 다음날 우리는 위스콘신 라신카운티에 있는 ‘유니온 그로브(Union Grove)’ 적십자사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곳 직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우리 위문품이 기대 이상이라며 친절하게 말해 주었다. 그들은 약 60개의 꾸러미를 받은 뒤 우리에게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밀워키(Milwaukee)에 있는 또 다른 보호소를 알려 주었다. 우리는 그곳에도 70개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협회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단체와 우리가 행한 과거의 구호 활동들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8월 26일에는 6시간 동안 차를 몰고 위스콘신 주의 소도시인 비로쿠아(Viroqua)의 한 보호소에 가서 30개가 넘는 위문품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그 위문품들은 다시 수재민들에게 배분될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인근 ‘솔저스 그로브(Soldiers Grove)’에 있는 또 다른 보호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를 환영해 준 소방서장에게 50여 개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8월 27일에는 많은 청소용품과 약 50개의 위문품을 일리노이 디캘브(DeKalb) 보호소에 전달했다. 우리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손실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신께 신실하게 기도드렸다.





## 오하이오

오하이오 센터 동수들은 2007년 8월 24일 홍수 지역 보호소들을 방문해 수재민들에게 개인 필수품과 성금을 제공했다. (부록 C 참조) 일부 이재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뒤 구호 팀은 즉시 그들에게 필요한 청소용품을 구입한 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강변 지역의 집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개인 생필품, 위로금과 함께 전달했다. 수재민들은 구호 팀의 진실된 마음에 크게 감동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낌없는 마음에 매우 놀랐으면서 이것은 신이 주신 기적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재민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구호 작업을 돕는 등 항상 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와 부인은 이 어려운 때에 신께서 노란 조끼(구조 대원 유니폼)를 입은 천사들을 보내 기운을 북돋아 주신 데 대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이 신의 사랑에 마음속 깊이 감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동수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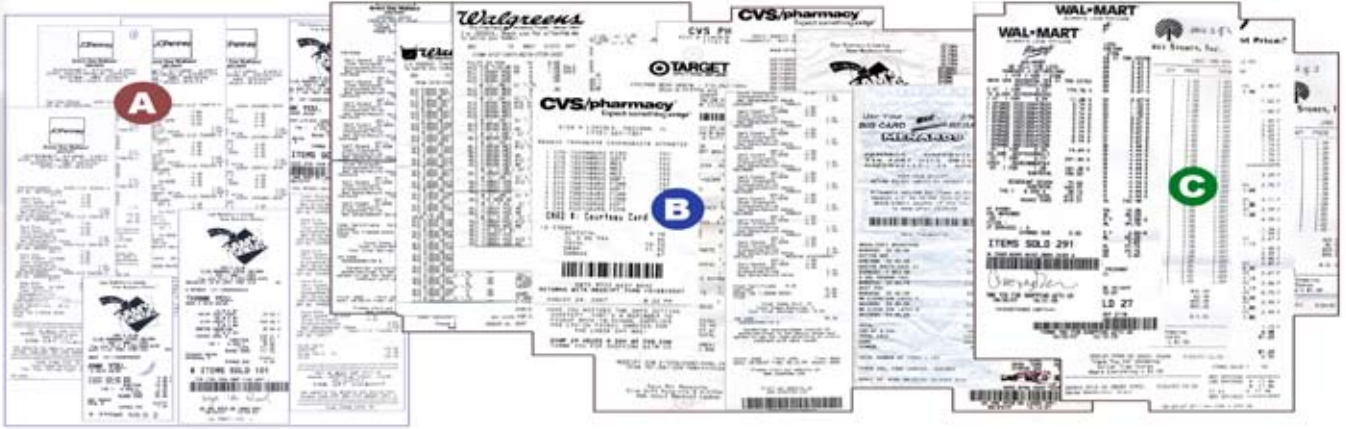
마지막 날, 구호 팀은 가난한 이들이 와서 머물거나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가는 한 보호 시설을 방문했다. 동수들은 보호소에 물자가 부족한 것을 알고선 즉시 필요한 청소용품을 구입해 와서 그들의 재고를 보충해 주었다. 적십자 직원들은 두 대의 밴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내리는 일을 도와준 뒤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팀에게 '하이 파이프'를 해주었다. 임무 완수와 형제애를 나타낸 표시였다. 사랑과 관심의 세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했던 터라 다들 행복해했다. ☀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미국 중서부 수재민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미국 달러)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b>미네소타</b> 생활필수품 (치약, 칫솔, 물비누, 수건) 운송비 (차량 임대료, 연료비)	2,300 300	A
<b>위스콘신</b> 생활필수품 (수건, 비누, 과자, 청소용품) 위로금	2,942 1,300	B
<b>오하이오</b> 생활필수품 (마포, 표백제, 청소용품, 수건, 비누, 과자) 위로금	1,000 4,000	C
<b>총계</b>	미화 11,842달러	



오클라호마

## 노숙자들이 스승님의 사랑에 감동하다

오클라호마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1일 노동절 주말, 오클라호마 동수들은 오클라호마 시의 노숙자들과 함께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눔으로써 노동절을 기념했다.

토요일 단체명상이 끝난 후, 우리는 190명의 노숙자들에게 줄 채식 볶음밥, 채식 계란말이, 비건 쿠키, 차가운 음료 등 사랑의 음식을 몇 가지 준비했다. 우리는 모든 음식에다 스승님의 사진과 우리 협회 깃발을 함께 포장해 '도시 구호 임무대(City Rescue Mission)'에 가서 맛있는 채식 음식을 나눠 주었다. 모두들 굉장히 좋아했으며 이 더운 여름에 따뜻한 음식과 시원한 음료수를 받게 된 것에 감동했다. 우리는 또 그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과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에 대한 자료도 함께 배포했다. 한 여인은 '대안적인 삶' 전단에 실린 정보를 매우 흥미로워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전단을 좀더 요청하기도 했다. 노숙자 중 일부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스승님께 자신들의 사랑을 전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좀더 자주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다.

오클라호마 시의 불우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 중국

# 중국 각지의 재난 지역 이재민들에게 신의 사랑을 전하다

중국 동수들 종합 보도 (원문 중국어)

**올** 여름 초부터 중국 여러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중국 전역의 우리 동수들은 재빨리 구호 팀을 결성해 재해 지역에 가서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구호품을 전했다. 동수들은 구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반 대중들이 나날이 기후 변화가 악화되고 가뭄과 홍수가 증가하는 위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랐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들이 굳은 결심과 단호한 실천으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중국의 다른 10개 성 구호 활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잡지 187·188·189호를 참조하세요.)

## 산시 성

**올** 7월 초부터 산시(陝西) 성의 여러 지역이 연속해서 쏟아진 폭우로 심각한 홍수와 진흙 사태가 발생해 초토화되었으며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재해 상황을 알게 된 동수들은 즉시 필요한 구호 물자를 구입해 피해 지역으로 가서 이재민들에게 구호금과 함께 나눠 주며 스승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번 활동의 대상지는 상뤄(商洛) 시의 쥐수이(柞水)·단평(丹鳳)·상난(商南) 현과 안강(安康) 시, 양(洋) 현, 린유(麟遊) 현, 포핑(佛坪) 현, 셴양(咸陽) 시 등지였다.

상뤄 시 단평 현의 상황이 특히 심각해서 동수들은 피해 지역 깊숙이 들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7월 말경에 단평 현 재난 구호 사무국에 구호품 일부를 전달했으며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의 이재민들에게는 접이식 침대, 이불, 쌀, 마른국수, 소금 등 시급히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 가능한 한 빨리 물품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30km를 걸어 파손된 도로로 인한 장애를 뚫고 재해 지역으로 들어갔





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재민들에게는 구호금도 전달했다. 다른 곳과는 차별되는 우리의 재난 구호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화상보(華商報)』와 단평 현 정부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리의 이번 구호 활동을 보도했다.

8월 말에 우리는 다시 단평 현 이재민들을 방문해 쌀, 식용유, 이불, 옷 등의 구호 물자를 전달했다. 동장은 크게 감동해 이렇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모범을 따라 그 희생 정신을 우리 구호 활동의 원동력으로 삼아 한층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한중(漢中) 시 포핑 현은 7월부터 어마어마한 폭우가 4차례나 쏟아져 홍수, 산사태, 진흙사태 등 심각한 재난이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거나 전 재산을 잃었다. 우리는 9월 초에 그들에게 쌀과 밀가루, 식용유 등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가을 중반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우리는 두꺼운 이불 430채를 구입해 이재민에게 전해 달라고 민정국에 부탁

했다.

상난 현에서 400채의 이불을 구입할 때 우리의 자선 활동에 큰 감명을 받은 상점 주인은 돈을 기부하면서 이재민들에게 관심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또 사흘간 채식하기로 결심했다. 이 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큰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간쑤 성

2007년 7월 24일에 간쑤(甘肅) 성 평량(平涼) 시 징완(涇川) 현에 극심한 폭우가 쏟아져 대홍수가 발생했다. 이재민들을 염려하신 스승님께서 구호 활동을 지시하셨다. 현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때 신의 놀라운 안배 덕분에 좀 전에 다른 재난 조사 팀을 태워 주고 온 택시 기사를 만났다. 그는 우리가 비영리 단체라는 것을 알고선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며 우리를 피해가 가장 큰 주민들의 집으로 바로 안내해 주었다.

동수들이 모은 성금과 600벌의 옷 외에 우리는 이불, 고무신, 밀가루·쌀·식용유·간장·식초·소금 등의 구호 물자를 구입해 청관(城關)·왕춘(王村) 진과 당위안(黨原)·허다오(合道) 등의 산촌에 가서 구호품과 위로금을 배포했다. 마을 주민들이 큰 감명을 받아 자꾸 우리의 이름과 주소를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나중에 우리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우리를 통해 사랑을 보내시는 것이니 신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8월 11일, 간쑤 성 우웨이(武威) 지역에 엄청난 폭우와 우박이 발생했다. 재난 조사원들은, 생필품과 다른 구호 물자는 정부에서 잘 조달해 주고 있지만 집을 복구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민들이 가옥을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 후난 성



올해 후난(湖南) 지역은 비정상적인 기후로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겪었다. 다오(道) 현, 징저우(靖州) 현과 리수이(澧水) 강·위안수이(沅水) 강 유역에는 폭우가 쏟아진 반면 창사(長沙) 지구의 닙샹(寧鄉) 현과 융저우(永州) 시의 다오(道) 현, 닙위안(寧遠) 현은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이 밖에 린리(臨澧) 현, 스먼(石門) 현 등 창더(常德) 시 9개 지역에선 보기 드문 회오리바람이 불고 우박 폭우가 쏟아졌다. 우리는 재해 상황을 파악한 뒤 즉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해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배포하고 재난을 당한 빈곤 가구에는 구호금도 전달했다.



태풍 스팟(Sepat)의 영향으로 8월 19일 상수이(湘水) 유역 거의 전역에 폭우가 쏟아져 천저우(郴州)와 주저우(株州) 지구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다. 동수들은 신의 무한한 사랑을 안고 안런(安仁) 현, 투링(茶陵) 현, 루(汝) 현, 융싱(永興) 현으로 구호 활동을 떠났다. 우리는 집이 완전히 파괴된 이재민들에게 특별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재민들은 신의 사랑 어린 관심과 도움에 깊이 감사했다.



## 윈난 성

7월 19일에 윈난(雲南) 성 잉장(盈江) 현 신청(新城) 향에 거대한 흄사태가 발생하여 농작물과 도로, 관개시설을 파괴했다. 루취안(祿勸) 현에서는 며칠 동안 계속된 비로 홍수가 나서 많은 가옥이 파괴되었다. 동수들은 이재민 구호 활동을 전개하는 것 외에도 진닝(晉寧) 현과 쉰톈(尋甸) 현으로 가서 가난과 재해로 고통 받는 여러 소수민족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을 도왔다.

루취안 현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난한 지역으로, 종종 산사태가 발생한다. 올해 1월부터 몇몇 마을이

가뭄으로 고통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홍수마저 겪어야 했다. 이재민들에겐 식량이 다급했다. 동수들은 이 지역에서 이미 두 번의 구호 활동을 펼쳤으나 8월 중순과 하순에 가난한 주민들에게 의복, 식량, 구호금을 추가로 지원했다.



## 장쑤 성

# 채식 만두로 노인들을 위로하다

중국 동수들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장쑤(江蘇) 성에 있는 한 양로원에 채식 만두를 가져갔다. 그 곳에는 약 30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았다.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있지만 그들의 외로운 마음은 여전히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채식 햄과 마른 채식고기, 채식 케이크와 과자를 포함한 여러 선물을 가져갔다. 그리고 양로원에서 만두를 만들려고 채식 만두피와 소도 넉넉히 준비했다. 우리는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어드렸다. 노인들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셨고 아주 행복해하셨다. 만두가 나오자 노인들은 조용히 앉아서 만두를 드셨다. 음식만이 아니라 스승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더욱 만족스러워하시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맘속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계속 만두를 더 달라 하시며 너무 잘 드시는 모습에 직원들은 놀라워했다. 친척들 가운데 몇 사람도 감동을 받아 채식 만두 맛을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떠나올 때 직원들과 친척들이 우리에게 수차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얼굴은 진실한 미소로 희미해졌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동안 많은 동수들이 실제로 스승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번 일을 통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는 것과 모든 것을 스승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 칠레

# 집 없는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다

칠레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19일, 우리 칠레 협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집(Home of Christ)을 방문하여 거리의 사람들에게 채식 음식과 옷을 제공했다. 또 견본책자와 '수프림 마스터 TV' 전단도 배포했다. 우리가 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보다는 우리를 노인과 장애인이 머물고 있는 한 보호시설로 인도함으로써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렇게 가난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음식을 떠돌이 개와 나눠 먹는 그들의 사심 없는 행동에 우리는 크게 감동했다. ☀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humanitarian>

(연도, 국가/지역, 사건별 검색 가능)

 스승님의 농담

## \*여보, 차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칭하이 무상사/ 2003. 2. 3.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카뷰레터에 물이 들어갔지 뭐예요.” 그러자 남편이 소리쳤어요. “카뷰레터에 물이 들어갔다고? 말도 안돼!” 부인은 다시 말했어요. “진짜예요. 카뷰레터에 물이 들어갔다니깐요.”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카뷰레터가 뭔지도 모르잖아! 차는 어디 있지?” 그러자 부인이 대답했어요. “수영장예요.” ☀



## 일본 니가타 현 가시와자키 시장의 감사 편지

(원문 일본어)

2007년 9월 14일

친애하는 분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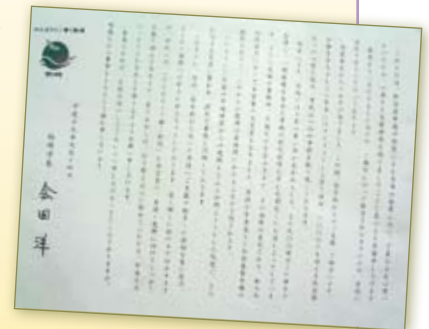
우리는 귀하께서 최근 니가타(新潟) 현 주에쓰오키(中越沖)에서 발생한 지진 이재민들에게 때 맞춰 자비로운 원조와 구호 물자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제공해 주신 구호품은 가장 요긴하게 사용될 피해 가정에 전달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각 방면의 지원과 후원 덕분에 저희는 드디어 8월 말에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천여 가구가 조립식 주택으로 이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도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과 온갖 단체의 엄청난 구호 활동과 무수히 많은 지원, 격려 덕분에 가시와자키(柏崎) 시는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길고도 지루한 여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더 열심히! 가시와자키를 다시 빛내자!”라는 구호 아래 똘똘 뭉쳐 재건과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하의 지속적인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귀하를 직접 찾아뵙고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간단히 서신으로 대신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시와자키 시장  
히로시 케다(會田洋) 드림

주: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니가타 현 주에쓰오키 지진 구호 활동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 보시려면 뉴스잡지 188호를 참조해 주세요.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또는 폭넓게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냉:  
코토노우/ Mr. Yedjenou Georges/ 229-93076861/ smchwisdom@gmail.com  
코토노우/ Mr. Yedjenou Sylvestre/ 229-21380404/ yedsylvestre@gmail.com  
코토노우/ Mrs. Hounwanou Sessito Lucie/ luxe21@yahoo.ca  
포르토노보/ Mr. Hounhoui Mahougbe Didier/ 229-90-93-29-99/ smptonovo@yahoo.fr  
★ 부룬디: Ouagadougou/ Mr. YAMEOGO Honore/ 226-70-62-34-58/ honoreyam@yahoo.fr  
★ 카메룬:  
두알라/ Mr. Daniel Xie/ 237-3-3437232/ smcameroon@gmail.com  
두알라/ Mr. Thomas KWABILA/ 237-99-15-05-73/ thomaskwa@yahoo.fr  
두알라/ Mr. BIANE Alain Frederic AHMADOU/ 237-99-86-50-26/ alainbiane@yahoo.fr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Hung Lui-Liang/ 243-81361939/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Mbau Ndombe Abraham/ 243-811433473  
★ 가나:  
아크라/ Mr. Amuzu Kwei Samuel/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아크라/ Mr. Emmanuel Koomson/ 233-244170-230  
★ 케냐: Mr. Chin Szu Yao/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us@intnet.mu  
★ 나이지리아:  
예니고아/ Ms. Harry Juliana/ 234-8032365567/ 234-805-802/ 8206brayila@yahoo.com  
★ 콩고공화국:  
브라자빌/ 센터/ 242-5694029, 242-5791640/ goldenagecongo@yahoo.fr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76742-5040/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팔리메/ Mr. Dossouvi Koffi/ 228-905-42-76/ jdossouvi@yahoo.fr  
팔리메/ Mr. Late Komi Mensa/ 228-441-09-48/ smkpalimetogo@gmail.com  
로메/ Mr. GBENYON Kuakivi Kouakou/ 228-902-72-07/ kgbenyon@yahoo.fr  
로메/ Mr. GERALDO Misbaou/ 228-022-78-44/ mmylg@yahoo.fr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264-9807/ semazima@yahoo.com

###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3-4625964  
★ 브라질:  
벨렘/ Ms. Cleci de Brito Neves/ 55-9188019288/ Contato.belem@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튼/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l@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센터/ ottawacentre@gmail.com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p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17-0946/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냐/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l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5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mexicali.center@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l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6673-2220/ mrl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981-836314/ emilce\_cespedes@hotmail.com  
시우다드델에스테/ Mr. and Mrs. Italo Acosta/ 595-578571, 595-983614592/ Italoacostaa@hotmail.com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gmail.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ontact@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3565176/ teresita41@hotmail.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1-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gu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Ms. Dianela Carola Diaz Ferreira/ 58-4168605497/ diane133@yahoo.es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christophers2@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yahoo.com  
새크라멘토/ Mr. Thi Thai Le/ 916-799-7768/ thaivegi@yahoo.com  
새크라멘토/ Mr. Tuan Minh Le/ 1-916-226-9197/ tuamins@yahoo.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tcenter@hotmail.com  
새너제이/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새너제이/ Mr. Jingwu Zhang/ 1-408-505-5824/ jingwuzhang@hotmail.com  
새너제이/ Ms. Mai Thanh Phan/ 1-408-603-5037/ smthanhmai@yahoo.com  
§ 플로리다: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lorahai@gmail.com  
§ 플로리다:  
잭슨빌/ Mr. David Tran/ 1-904-285-0265/ jax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드/ Mr. Johnny Scott-Meza/ 1-407-529-7829/ scottmezaJohnny@yahoo.com

§ 조지아:

센터/ georgiacenter@hotmail.com

Mr. Roddell Pleasants/ 1-678-429-7958

Ms. Kim Dung Thi Nguyen/ 1-404-422-1431

§ 하와이: Mr. Neil Trong Phan/ 1-808-398-4693/ neilphan@gmail.com

§ 일라노아: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itz/ 1-317-842-8119/ josiepo@sbcglobal.net

§ 캔터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fontenot@hotmail.com

§ 매릴랜드:

실버 스프링/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볼티모어/ Mr. Pete Theodoropoulos/ 1-410-667-4428/ petetheo1111@hotmail.com

§ 매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h@yahoo.com

§ 미주리: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mst.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Mr. Hero Zhou/ 1-973-960-6248/ yb\_zhou@hotmail.com

Ms. Lynn McGee/ 1-973-864-7633/ lynn.mcgee@yahoo.com

Ms. Bozena Chetnik/ 1-973-896-8659/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Mr. Fred Lawing/ 1-704-614-4397/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크하임: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크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931-4699/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사우스캐롤라이나: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474-3492/

smch\_southcarolina@yahoo.com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i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델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델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tx.rr.com

델라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델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2321@att.net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comcast.net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888@comcast.net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워싱턴 DC/ 센터/ 1-703-997-1622/ VA\_Center@yahoo.com

버지니아/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ahoo.com

버지니아비치/ Le Thanh Liem/ 1-757-461-5531/ qytek@yahoo.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o@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Gin/ 886-37-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l@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com

자카르타/ Ms. Murnial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il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요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650-7704/ yogyakartawisdom@yahoo.com

★ 이스라엘:

텔아비브/ Mrs. Talya Tal/ 972-50-8511720/ tal.talya@g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h.biglobe.ne.jp

도쿄/ Mrs. Hyakutake Toshiko/ 81-90-4923-1199/ binta@k7.dion.ne.jp

도쿄/ Mrs. Yoshii Masae/ 81-90-6542-6922/ smchlute@gmail.com

도쿄/ Mrs. Sato Rie/ 81-80-5654-1688/ riesato302@yahoo.co.jp

오사카/ 센터/ smchtoosaka@gmail.com

오사카/ Mr. Le Khac Duong/ 81-90-6064-7469/ leduongjp@yahoo.com

나고야/ 센터/ 81-90-3447-3177/ yumiko-emi@hotmail.co.jp

★ 요르단: Mr. Jafar Marwan Irshaidat/ 962-7-95119993/ estaphuam@hotmail.com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nri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조영원/ 011-9670-5839/ seoulyoungwon@yahoo.co.kr

서울/ 강진태/ 011-263-3563/ samwoncokr@daum.net

서울/ 류경남/ 011-715-7693/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gmail.com

부산/ 송호준/ 010-3599-4552/ shj92324@hanmail.net

부산/ 황상원/ 051-805-7283/ 817hsw@naver.com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10-3804-5048/ freely3456@yahoo.co.kr

대구/ 한선희/ 010-3034-5232/ sunny5338@hanmail.net

대구/ 차재현/ 010-4656-0733/ edwadcha@yahoo.co.kr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ejeon@yahoo.co.kr

대전/ 도봉희/ 016-857-5547/ dbhs44463@yahoo.co.kr

대전/ 김선제/ 042-581-3718, 017-425-2390

전주/ 최병선/ 011-9715-9394/ buda1996@hanmail.net

광주/ 센터/ 062-525-7607/ smgwangju@naver.com

광주/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광주/ 이민규/ 011-609-2243/ mglee2243@naver.com

광주/ 김경로/ 017-622-2374/ k2road@gmail.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244-1250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안동/ 김삼태/ 010-4570-9244

울산/ 센터/ 052-224-4111

울산/ 유한주/ 010-5298-6625/ gkswn6625@hanmail.net

원주/ 센터/ 033-763-9358

원주/ 정광훈/ 019-369-2509/ funnychong@hanmail.net

원주/ 김진숙/ 010-5183-2509/ chinskim@hanmail.net

청옥/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mboon\_9@hotmail.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28532231/ mcdi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28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oldpiong@streamyx.com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lsmch@yahoo.com

쿠알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울란바토르/ Ms. Bolormaa Avirmed/ 976-11-341222/ bolor\_suvd@yahoo.com

울란바토르/ Mr. Bayarbat Rentsendorj/ 976-9974277/ quanyin\_mongolia@yahoo.com



코톨/ Mr. Chinsukh Uuter/ 976-99110446/ khotolcenter@yahoo.com  
 코톨/ Ms. Tsendorj Tserendorj/ 976-99370917/ tsendee\_hulul@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ikss@mptmai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75-6609/ phi.loveocean.mnl@gmail.com  
 마닐라/ Ms. Kim Thuy Bich Chau/ 63-917-258-7642/ chauthuykim@yahoo.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ence Fernando/ 94-11-2412115/ smchnirvana@gmail.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ck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bkctcp@gmail.com  
 방콕/ Mr. Chusak Osonprasod/ 66-081-4816500/ mummykat@hotmail.com  
 방콕/ Mrs. Ratchanan Jintana/ 66-081-7515227/ bkckpcr@gmail.com  
 차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nnian/ 66-50-332136/ siriwanliy@gmail.com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Mr. Dhiraj D. Radadiya/ 971-50-3118499/ dradadiya@yahoo.com  
 다바이/ Mr. Mahesh Shah/ 971-50-4503514/ map\_shah@yahoo.com

##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64-9953748/ qyaustria@googlegmail.com  
 비엔나/ 연락인 사무실/ 43-650-8420794/ ngocdany@yahoo.com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s.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quanyinsolia@gmail.com  
 플로브디프/ M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98-9706788/ zelji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i.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프라하/ Mr. Nguyen Tuan Dung/ 420-608124709/ czech-center@spojenisbohemi.cz  
 ★ 덴마크:  
 오덴스/ Mr. Thanh Nguyen/ 45-66-190459/ ductam@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strid Murumagi/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헬싱키/ Mr. Tri Dung Tran/ 358-40-7542586  
 ★ 프랑스:  
 알사르/ 센터/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lumieretson@gmail.com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몽펠리에/ Mr. Sylvestrone Thomas/ 33-4-67650093/ ocean-amour@wanadoo.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Mr. Grigori Guinzbourg/ 49-30-5498-6147/ Grigori.Guinzboung@gmx.de  
 베를린/ Ms. Hoa Thi Hoang/ 49-30-3083-4712/ Pureocean@web.de  
 뒤스부르크/ Mr. Veithen, Michael/ 49-174-5265242/ dusseldorfcenter@hotmail.com  
 뒤스부르크/ Ms. Tran, Thi Hong Mai/ 49-2162-8907108/ mai\_tran70@yahoo.de  
 프라이부르크/ Ms. Elizabeth Muller/ 49-7634-2566/ elmuear@surfeu.de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yahoo.com  
 뮌헨/ Mr. Nguyen, Thanh Ha/ 49-89-353098/ ha\_nguyensm@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vicky.chriskou@g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부다페스트/ Mrs. Aurelia Hapral/ 36-20-2400259/ doraur@gmail.com  
 ★ 아이슬란드: Ms. Nguyen Thi Lien/ 354-5811962/ reyjkjavik\_center@yahoo.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Mrs.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캄포바소/ Mr. Francesca Spensieri/ 39-333-722-5527/ fancy\_lalla@yahoo.it  
 볼로냐/ Mrs. Nancy Dong Giacomozzi/ 39-320-341-0380/ QuanYinBologna@gmail.com  
 ★ 아일랜드:

더블린/ Mrs. Hsu, Hua-Chin/ 353-1-4865852/ smch\_dublin@yahoo.co.uk  
 더블린/ Ms. Kathleen Hogan/ 353-87-2259619/ dublinquanyin@gmail.com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k/ 48-91-4874953/ ginka\_5@yahoo.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알코바카/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jvcaldeira@clix.pt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9104659738/ moscowcenter@rambler.ru  
 모스크바/ Mr. Oleg Dmitriev/ 79165763796/ moscowcenter@mail.ru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Ms. Maja Mijatovic/ 381642748820/ majazemun@yahoo.com  
 ★ 슬로바키아:  
 질리나/ Mr. Roman Sulovec/ 421-903100216/ roman.sulovec@spojenisbohemi.sk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류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forevershinelove@gmail.com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말라가/ Mr. Joaquin Jose Pretel Lopez/ 34-646843489/ joprela@hotmail.com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s. Wenqin Zhu/ 34-96-3301778, 34-695953889/ valenciachinghai@yahoo.es  
 발렌시아/ Mr. Jose Luis Ordena Huertas/ 34-653941617/ joselorduna@gmail.com  
 ★ 스웨덴:  
 앤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den@gmail.com  
 오레/ Ms. Viveka Widiund/ 46-63-38097, 46-70-6219906/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암스테르담/ Mr. Roy Mannaart/ 31-653388671/ r.mannaart@planet.nl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임스워치/ Mr. Zamir Elahi/ 44-7843-352919/ zamir.light@g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londonukcentre@googlegmail.com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런던/ Mr. Danny Ejayese/ 44-7949798310/ danny\_zen@yahoo.co.uk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isshop/ 61-7-3901-7038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l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i36@gmail.com  
 캔버라/ Ms. Jayita Belcourt/ 61-4-0976-1005/ jayita@amrita.com.au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rn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미드 노스 코스트/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goldenagecenter@gmail.com  
 노던 리버스/ 바이런 베이/ Mr. and Mrs. Jonathan Swan/ 61-2-6624-7209/ byronbaycentre@gmail.com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시드니/ Mrs. Kathy Divine/ 61-2-9891-5609/ universalove22@yahoo.com.au  
 타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62233118/ ray\_dixon@bigpond.com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80** (영어+22개 국어 자막)

###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

지구의 모든 공동 거주자들에게 바칩니다

#### 주요 내용:

이 DVD는 스승님과 당신이 입양해 돌보고 계시는 사랑스런 개들, 아름다운 새들의 사랑으로 충만한 순간들에 관한 기록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들의 삶은 천국에서처럼 온정과 기쁨으로 가득하다!

개들은 아주 웃기고, 새들은 개성이 강하고 때론 응석을 부리기도 하지만, 모두들 스승님의 귀염둥이이다! 스승님은 항상 자상하고 상냥하게 그들과 놀아주시고 산보에 데려가시고, 같이 TV를 시청하시고, 밥을 먹여 주시고, 달콤한 노래를 불러 주시고, 다정하게 안아 주신다. 스승님은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보호하시며 가족처럼 대해 주신다. 스승님 엄마의 극진한 사랑 속에 축복과 행복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랑이 클수록 마음끼리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법이다. 인간은 동물의 세계를 좀더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 그들은 영성이 매우 높고, 감정이 깊으며, 숭고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물들의 다양한 면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동물들을 좀더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 CR03** (중국어)

### 참 스승의 영원한 보살핌

1997. 12. 27. 미국 워싱턴 D.C. 국제 선사

#### 주요 내용:

워싱턴 선행사 기간 동안 스승님은 수행과 명상에 대한 중국 동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한편 결혼·연애·우정·일·가족·

심리·교육 등 일상의 세세하고 복잡한 문제들까지 전부 설명해 주셨다. 스승님은 사랑으로 동수들의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쉽게 해결해 주신다. 스승님의 사랑이 담기 말씀과 유머가 봄바람처럼, 여름 비처럼 동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우리 영혼에 묻은 온갖 먼지들을 말끔히 씻어내 준다.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 중문판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1, 2)』

칭하이 무상사께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The Dogs in My Life)』에 이어 이번에는 당신 집에 사는 23마리의 사랑스런 새들을 위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The Birds in My Life)』이라는 또 다른 책을 집필하셨다. 이 아름다운 그림책에서, 새들마다 스승님이 각각의 주인공들에게 사랑을 담아 ‘전기(傳記)’를 써 주시고, 각각의 일상을 나타낸 사진들에 ‘새의 말’로 설명을 달아 주셨다.

이 아름다운 새들은 저마다 출신 배경이 다르고 흥미롭고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사연들 중에는 감동으로 눈물짓게 하는 이야기도, 미소를 머금게 하는 이야기도 있다. 그들의 귀여운 말과 동작은 스승님께 많은 기쁨과 웃음을 선사했다. 이 자그마한 생명체 안에는 높은 영혼과 충만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 스승님은 종종 새들의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기까지 했다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우리 모두가 새와 같은 다른 생명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동등하게 사랑하고 존중하길 바라신다.

이 책들을 통해 여러분은 우리 동물 친구들이 얼마나 감성이 깊고 영리한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짝과 친구들, 돌봐 주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하며, 또한 매우 섬세하고 다정하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을 때는 인간과 똑같이 슬픔에 괴로워한다. 그래서 칭하이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영원토록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아름다운 엽서 세트

이 아름다운 엽서에 담긴 사진들은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에서 멋진 새들의 사진과 시와 같은 영혼의 속삭임을 엮은 것들이다. 8장이 한 세트이며, 고품질의 아트지에 총 천연색으로 선명하게 인쇄되어 나왔다. 엽서마다 우아하고 낭만적인 독특한 예술적 분위기가 발산된다. 이 엽서들은 받는 이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줄 것이며, 소장품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

이들 아름다운 작은 새 천사들한테 천국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을 전해 달라고 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안부 인사를 전하게 해보자. ☀